

INVITATION
TO THE
ARTS

MARCH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3 vol.291



Cover Story

마에스트로 사샤 마킬라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축제속으로 고고 - 2016 통영국제음악제
세계의 공연장
오페라 도시 프라하 오페라극장 Narodni Divad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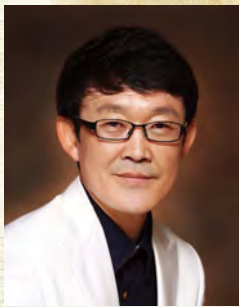
지휘자 사샤 마킬라

여기명드고

(黎明登高)

희망을 품고
높이 오르다

2016. 3. 24(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정필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가야금 장혜숙



소프라노 김유섬



소리꾼 김용우



경기민요 김세윤



경기민요 이은혜



소리 박성희



소리 정선희



부산시립합창단

PROGRAM

- 소리와 관현악을 위한 (희망서곡) - 부산초연
• 작시 : 신석정 • 작곡 : 백성기 • 소리 : 박성희 · 정선희
-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 부산초연
• 편곡 : 최재륜 • 가야금 : 장혜숙
- 관현악과 민요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창부타령, 진도아리랑)
• 편곡 : 오혁, 김희조, 김성운 • 민요 : 김세윤 · 이은혜
-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임진강, 장타령, 너영나영)
- 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의 나라로) - 초연
• 작곡 : 백규진
• 소프라노 : 김유섬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전상철)



테너2 우원석

바리톤 김대성

응답하라 학생시절!

베이스 안세범

테너2 조동훈

테너1 황성학

테너2 이승우

테너1 신대현

피아노 안선애

베이스 김정대

테너1 이홍길

바리톤 장진웅

바리톤 고정현

특별출연
소프라노 설은경

응답하라 학생시절

2016. 3.15 (화)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 고향생각 · 세시봉 메들리 · 나성에 가면 · 유재하 김광석 메들리 · 카레 · 입 맞춤 · 숲속을 걸어요
·Largo · 순례의 합창 ·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 도라지 꽃 · 어젯밤 이야기 · 헝가리 댄스 · 이문세 히트곡 메들리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Happy앙상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티켓 _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공연문의. 051)607-6042 정기회원, 학생, 예술인패스, 다자녀가족, 단체10매 이상 20%



월드뮤직그룹 비보이

2016. 3.23 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월드뮤직 그룹
합창 비보이 전통무용
장르의 벽을 넘어선
플라보르서트



총감독 서형원 조감독 정우인 기획 전나은, 김나은 무대 이희진 음향 김규식 조명 정훈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 전석1만원(학생20%할인) 문의 051) 607-6066 ※5세이상 관람가

지휘 김범수

뮤지컬배우 남경주

-2016 평화통일 콘서트-
PEACE & UNIFICATION
CONCERT 2016

2016. 3. 16. (수) 19:30 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피아노 김철웅




소프라노 강민성




성악 양상블 벨트라운



사회 정희정

|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 특별후원 

| 문의 051. 866. 6363 *본 공연은 초대권 (좌석교환권) 소지자에 한하여 당일 좌석권 교환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44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BRAHMS



Violin **최지웅**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지휘
오충근

PROGRAM J.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2016.3.31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명품콘서트 예술감독 **김원명**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입장료 | 1만원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INTERPARK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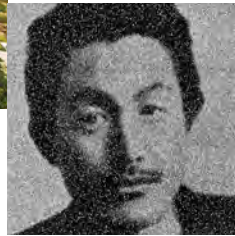
예술에의 초대



CONTENTS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마에스트로 사샤 마킬라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 10 3월 공연 캘린더
- 12 세계의 공연장
오페라 도시 체코 프라하의 오페라극장 Narodni Divadlo
- 16 축제속으로 고고
2016 통영국제음악제
- 18 불멸의 거장 이증섭
이증섭, 행운아 중 행운아 '그 행운의 내용' 최석태
- 20 테마가 있는 여행



BOARDS INSIDE

- 23 프리뷰
- 32 리뷰
- 34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47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48 새로 나온 음반
- 49 새로 나온 책
- 50 스페셜 무비
- 51 스페셜 이벤트
- 52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3월호 통권 291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2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마에스트로 사샤 마킬라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동시대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지휘자로 평가받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거장 사샤 마킬라가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을 찾는다.

3월 25일 지휘자 사샤 마킬라가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세종솔로이스츠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지인이 객원악장을, 세계 언론으로부터 지적이며 열정을 갖춘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호선이 협연을 맡아 모차르트 '돈 조반니' 서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핀란드 지휘자 사샤 마킬라(Sasha Mäkilä)는 핀란드 시벨리우스 음악원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2009년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이 주최한 미국 지휘 아카데미에서 펠로우십을 받았다. 2005년 한국에서 열린 수원국제지휘경연대회에서 최종후보로 결승에 오르기도 한 사샤 마킬라는 이듬해인 2006년 제6회 박탕 조르다니아 국제지휘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거장 쿠르트 마주어가 이끄는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보조지휘자로 활동하다 명지휘자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이끄는 미국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한 사샤 마킬라는 러시아, 영국, 유럽, 북미 등에서 초청받아 바담 레핀, 정경화, 지안 왕, 아넬린 레나이츠 등 국제적 연주자들과 성공적인 무대를 이끌어오며 그의 세대 중 가장 탁월한 지휘자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사샤 마킬라는 2012년 대관령국제음악제, 2014년 서울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지휘자로 한국무대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지난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마린스키극장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마린스키극장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다. 지난 200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극장지배인(Der Schauspieldirektor)’을 지휘하며 오페라 데뷔무대를 가진 사샤 마킬라는 2005년에는 필립 글래스의 챔버 오페라 ‘무서운 아이들(Les Enfants Terribles)’을, 2006년에는 ‘식민지(In the Penal Colony)’를 핀란드 초연 무대로 선보였으며, 다수 오페라 제작에도 참여해왔다. 현재 사샤 마킬라는 2012년부터 핀란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켈리 시티 오케스트라(세인트 미셸 스트링 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객원악장 양지인은 미국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거쳐 줄리아드음대 및 동대학원, 예일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Graduate Center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양지인은 그동안 KBS 교향악단, 부천 필하모닉, New Amsterdam Symphony Orchestra, Auburn Symphony Orchestra 등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KBS 클래식 오디세이, KBS 예술극장, NPR ‘From the Top’, NHK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더불어 모차르트의 가장

대중적인 오페라로 꼽히는 ‘돈 조반니’ 서곡. 불과 하룻밤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 서곡은 고전주의 시대의 오페라 서곡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오페라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를 사용해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임효선의 협연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알려진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준다.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그리그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인 이 작품은 리스트풍의 화려한 연주기교와 노르웨이 민요풍의 청순한 선율, 신선한 화성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위대한 낭만파 협주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협연자 임효선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시 수석입학 후 도미, 커티스 음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후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과 이탈리아 이몰라음악원 마스터 과정을 수료했다. 2003년 비오티 국제콩쿠르에서 1위와 특별상 그리고 청중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해 화제를 모았던 임효선은 2007년 세계 3대 음악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5위로 입상, 국제무대에 데뷔한 후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뉴욕 링컨센터홀, LA 디즈니 콘서트홀, 도쿄 오페라시티콘서트홀 등 세계 주요 공연장을 무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스페인 리세우 콘서바토리 초빙교수로 있는 임효선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멘토로 활동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오고 있다.

마지막 곡은 베토벤 교향곡 제7번으로 장식한다. 1812년 전쟁과 실연으로 지친 베토벤이 휴양차 떠났던 테플리츠 온천에서 안정을 되찾아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발표한 교향곡 제7번은 그 구성과 수법, 내용, 악기편성 등에서 베토벤 교향곡 중 최고로 꼽힌다. 특히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창조해낸 리듬의 역동성은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으로, 리스트는 이 교향곡을 가리켜 ‘리듬의 신격화’라 표현했으며, 작곡가 바그너는 ‘무도의 신화’라 칭하며 지금까지 세계의 예술이 창조하지 못했던 명쾌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03

CULTURAL SCHEDULE

2016 MARCH

| SUN | MON | TUE |
|--|--|---|
| | | 1 |
| 6 | 7 | 8 |
| 13 | 14 | 15 |
|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7: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p>중 (사)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 부산음악대축제 I '2016 부산신인음악회'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p>대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봄의 열정' 5만원·3만원·2만원 우리아트(920-9545)</p> <p>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피앙상블 드라마콘서트-응답하라 학창시절' 19:30 2만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42, 3100)</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 20 | 21 | 22 |
| | <p>중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태리음악연구회 제42회 정기연주회 '봄의 향연-한국 가곡과 간쑤네의 밤' 19:30 균일 2만원/정거화(010-8254-6178)</p> | <p>중 박미정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 27 | 28 | 29 |
| |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p>대 '에디트 피아프'를 잇는 프랑스 대표 샹송 뮤지션 무룡 콘서트 19: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p> <p>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01, 3148)</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 WED | THU | FRI | SAT |
|---|---|--|--|
| 2 | 3 | 4 | 5 |
| | | |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
| 9 | 10 | 11 | 12 |
| |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6 신춘음악회-새봄의 클래식'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4~5)</p> | <p>대 UKO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양보람(010-3863-3087)</p> |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7: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 16 | 17 | 18 | 19 |
| <p>대 2016 평화통일 콘서트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산지역회의(866-6363)</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p>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 합창의 밤'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08, 3142)</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p>대 다이내믹 부산! 신춘음악회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02-360-4020)</p> <p>소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영월행일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07, 3147)</p> | |
| 23 | 24 | 25 | 26 |
|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월드뮤직그룹 공명&비보이-음악이 춤을 추다'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p>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이정필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여명등고(黎明登高)' 19:30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p> <p>중 제47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독우회(010-3590-0474)</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p>대 마에스트로 사샤 마킬라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4~5)</p> <p>중 소프라노 전지영 리사이틀 19:30 균일 3만원/숨기획(010-2086-7658)</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p>대 2016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 발레공연 18:00 5만원·3만원·2만원 박헌주(010-4552-9605)</p> |
| 30 | 31 | | |
|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구렁덩덩 신선비'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7, 3154)</p> | <p>전시실</p> <p>한바다수석회, 미석회, 완석회, 한국수석회, 금정수석회 5개 단체 수석 작품전 - 대전실 3월 25일(금)-3월 27일(일) 인희성(010-9999-3577)</p> <p>정진달 개인 수석전 - 중전실 3월 25일(금)-3월 26일(토) 정진달(010-8312-7055)</p> | |

매일 밤 3편의 작품이
동시에 올라가는 오페라 도시

체코 프라하의 오페라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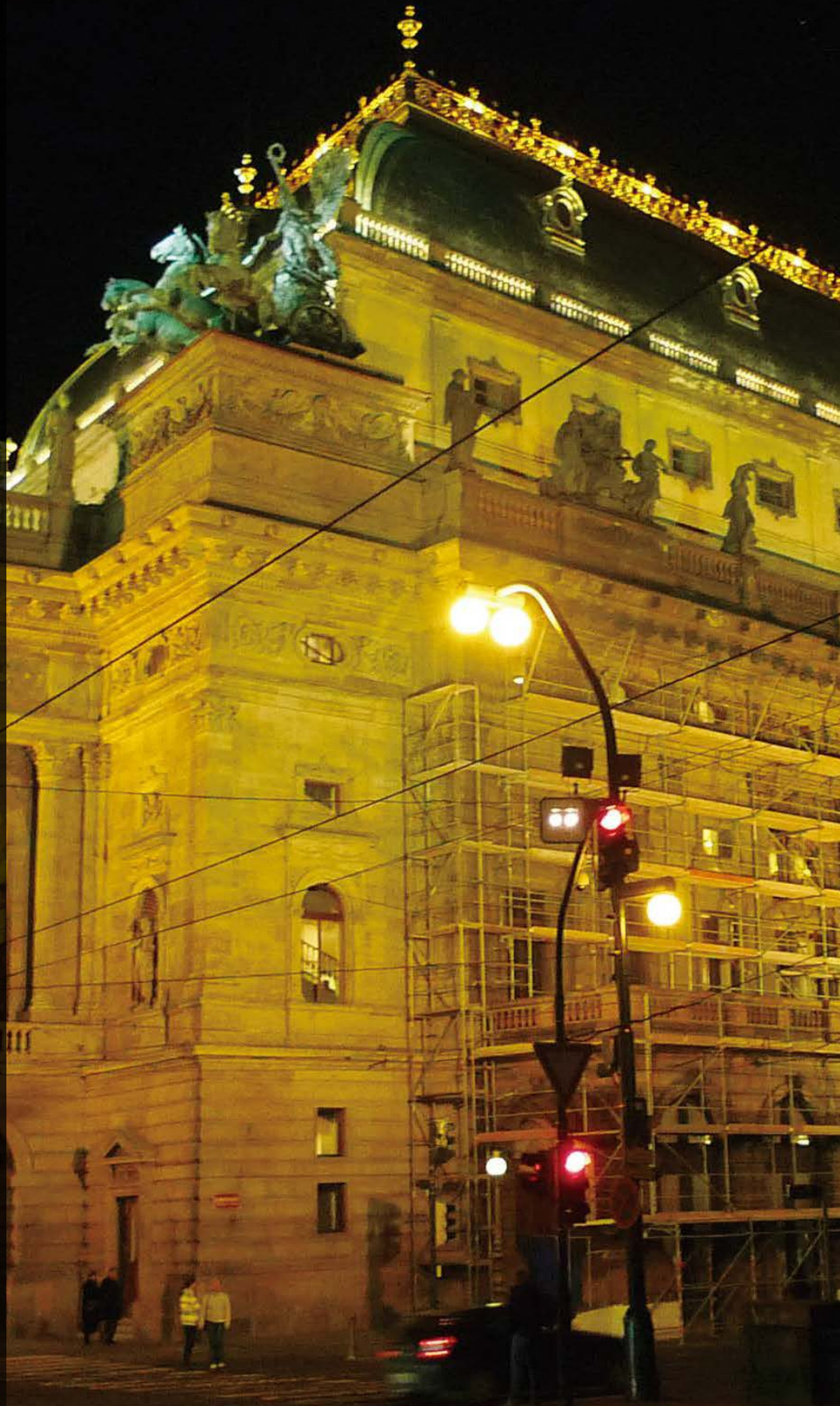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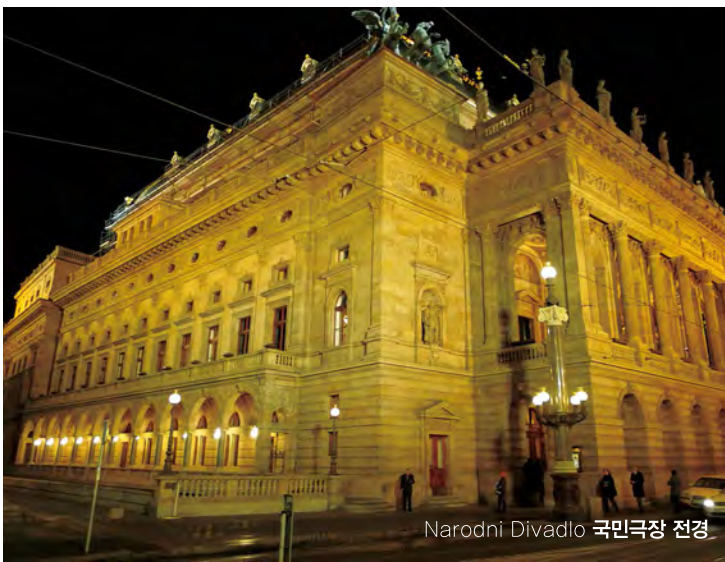
NARODNI DIVADLO

12

이번달 부터는 오페라하우스에 조금 더 촛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볼 계획이다. 먼저의 유럽을 대표하는 오페라하우스를 몇 언급해보자. 밀라노의 Teatro alla Scala 라 스칼라, 뮌헨의 Bayern Staatsoper 바이에른 국립극장, Wiener Staatsoper 빈 국립극장 그리고 런던의 Royal Opera 로열오페라하우스 정도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오페라 극장 또는 프로덕션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곳은 프라하의 오페라극장(들)이다. 오페라를 이야기하는데 프라하를 시작으로 하는 건 무슨 연유에서일까?

글·사진 이 상 훈 드림원정대 대표





Narodní Divadlo 국민극장 전경



Narodní Divadlo 국민극장 내부

사실 프라하는 매년 5월 12일 스메타나홀에서 펼쳐지는 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프라하의 봄 축제로 많은 음악팬들에 알려져있다. 그렇지만 그 축제는 대개 관현악과 실내악 위주로 구성된다. 오페라는 축제 라인업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처음 프라하를 찾았을 때도 유럽 정상급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Czech Philharmonic 체코 필하모닉을 듣기위해서 드보르작 홀을 방문했던게 처음이었다. 이후에도 음악 여행을 목적으로 이 도시를 찾았지만 대개 프라하의 봄 축제기간에 맞추어서였다.

그럼에도 왜 프라하에서 오페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사실 프라하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한 도시에 무려 3개의 오페라극장(National Theatre 국민극장, Prague State Opera 프라하 국립오페라, Estate 에스타테 극장)이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세 곳의 극장에서 매 시즌 서로 다른 작품들이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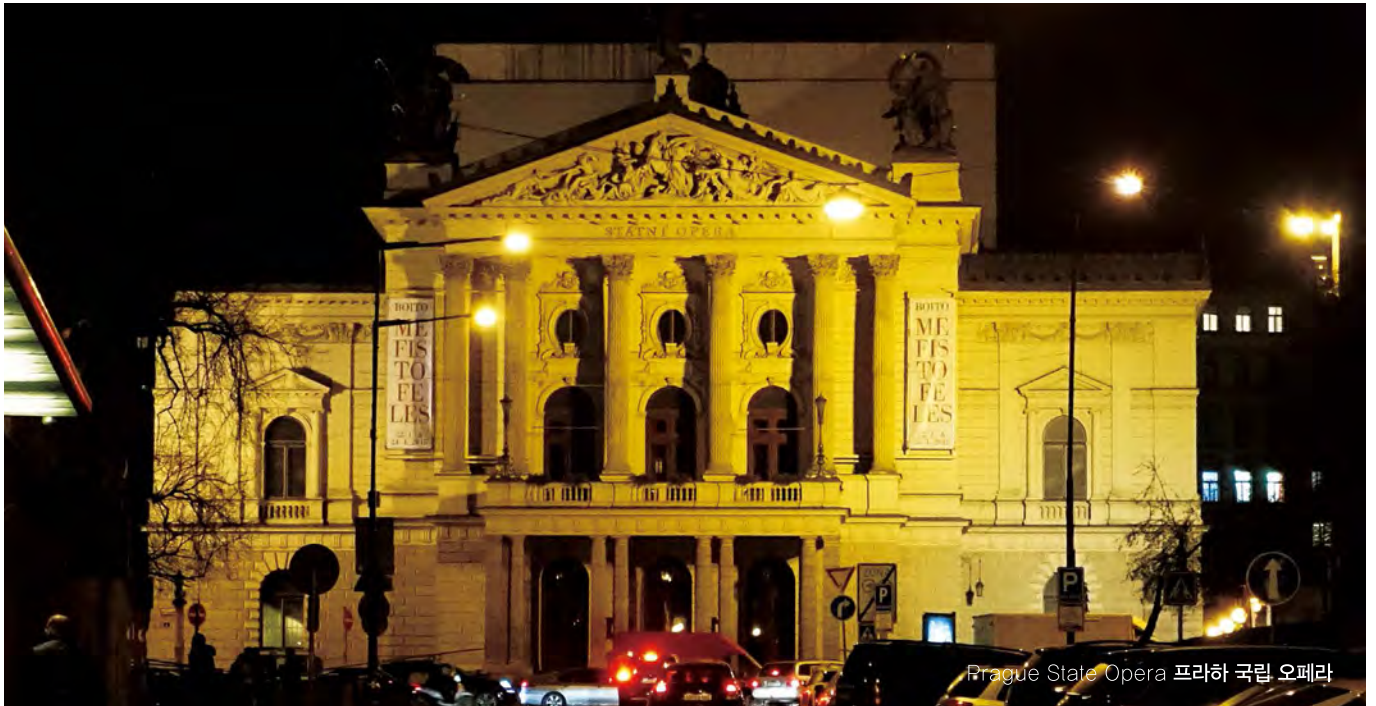
필자가 알기로도 실제로 한 도시에서 3곳의 오페라 극장이 시즌별로 운용이 되는 곳은 베를린(베를린 국립극장, 도이치오퍼 그리고 코미쉬극장)과 빈(빈국립극장, 포크스오퍼, 시어터 데어 빈) 정도에 불과하다. 굳이 하나를 더하면 2013년 완공된 마린스키 2 극장 덕분에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도 3곳의 오페라극장(기존 마린스키 극장과 미하일로프스키 극장)에서 작품이 올라간다. 얼핏 머릿속을 정리해보아도 더 이상 다른 도시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프라하는 3개의 오페라극장이 운용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꽤 흥미로운 건립 배경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National Theatre(체코어로 Narodni Divadlo) 국민극장이다. 사실 단어로만 놓고보면 국립극장이라 번역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극장의 탄생 배경을 놓고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National Theatre 국민극장은 체코 건축가 요제프 지테크의 설계로 1868년부터 13년간 공사를 하여 1881년 완공되었다. 그런데 건립기금은 역사학자 팔라츠키, 작곡가 스메타나 등 체코의 문화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이에 시민들과 각계의 지원으로 완성되었다. 말그대로 국가가 아닌 국민들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에 개관작도 1883년 스메타나의 오페라 'Libuse 리부셰'가 처음이었다. 외국 오페라가 주로 공연되는 Prague State Opera 프라하 국립오페라와 달리 체코 작곡가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스메타나의 오페라 'Bartered Bride 팔려간 신부', 'Two Widows 두 명의 과부' 그리고 드보르작의 오페라 'Rusalka 루살카', 'Alfred 알프레드' 등이 체코어로 공연된다.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국민극장은 화려한 불타바 강 동쪽 Narodni 나호드니 2가에 위치해 프라하의 명소인 카를교에서도 한눈에 보인다. 사실 스메타나, 드보르작의 오페라는 그들의 관현악곡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군다나 체코어로 표기된 작품 이름은 여간 낯설지가 않다. 필자도 이 극장에서 오페라를 만난적이 있는데 방문당시 'Dvě vdovy' 라고 체코어로 적혀 있는 작품명을 보고 도무지 가늠을 할 수 없었다. 어렵



Prague State Opera 프라하 국립 오페라



⋈

오페라
'두명의 가부'
커튼콜



»

오페라
'두명의 가부'
안내문

게 영어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야 스메타나의 오페라 '두명의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단 한편의 오페라를 만난다면 이곳 National Theatre 국민극장에서 보헤미아어로 만든 작품을 추천하고 싶다.

두번째로 소개할 극장은 Prague State Opera(체코어로 Státní opera Praha) 프라하 국립 오페라이다. 1988년 설립된 극장으로 처음에는 독일어 오페라를 목적으로 만든 극장이었다. Prague German 독일 오페라단의 극장으로 개관하였으며 개관 당시 이름은 New German Theater 신 독일극장이었다. 건립 목적대로 Wagner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가 개관작이었다. 참고로 프라하와 독일은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프라하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드레스덴 그리고 뉘른베르크가 있다. 네오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이 극장은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극장 중의 하나이다.

이후 다양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유명 음악인들이 공연하여 곧바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2차대전 이후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종전 이후, 체코 정부에 의해 국립극장에 통합되었고, 현재처럼 국립극장의 제2공연장으로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 등의 인기 오페라 작품을 주로 공연한다. 따라서 관광객이 오페라 극장을 찾게 되면 이 극장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정작 체코 국민들은 자국의 오페라를 소개한 국민극장을 더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Estate Theatre(체코어 Stavovske Divadlo) 에스타테 극장이다. 스타보브스케 극장이라고도 한다. 모차르트 오페라 'Don Giovanni 돈 지오반니'가 1787년 초연된 것으로 유명한 이 극장은 보헤미아의 귀족 노스티츠



Estate Theatre 에스타테 극장



오페라 '돈 지오반니'



에스타테극장 내부

리네크 백작의 주도로 1783년에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귀족들이 자신의 저택 내에 오페라 극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오페라가 귀족들만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노스티츠 백작은 일반 대중, 보헤미안을 위한 극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Estate 에스타테라는 이름은 개관 후 15년이 지나 극장의 소유가 Czech Estates 국유지 관리국으로 넘어가면서 붙여진 것으로, 당시의 공식 명칭은 왕립 국유지 관리국 극장이라는 뜻의 Royal Theatre of the Estate였다. 왕립이란 당시 체코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것으로, 독립 후에는 왕립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에스타테 극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프라하 국립오페라와 같이 현재는 국립극장 소속으로 바뀌었다. 모차르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화 '아마데우스'의 오페라 장면도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세 극장 다 내부는 화려하기 그지 없으며 저마다의 개성이 있다. 혹시 프라하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 www.narodni-divadlo.cz/en에서 영어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오페라 가격은 150~1,100 코루나(kc) 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7천원부터 최고가가 5만 5천원이다. 서유럽 오페라극장의 비싼 티켓 가격이 200유로

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부담없는 가격이다.

앞서 세 극장의 건립 목적과 역할을 함께 이야기하였지만 오늘날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국민극장에서도 독일이나 이탈리아 작곡가의 오페라 작품들이 올라간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립 목적처럼 국민극장에서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보헤미안의 작곡가 드보르작과 스메타나의 오페라를, 프라하 국립오페라에서는 서구 오페라 작곡가의 흥행작을, 그리고 에스타테 극장에서는 이곳에서 초연을 했던 '돈 지오반니'를 만날 수 있다면 제대로 프라하에서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작품 수준은 서구의 오페라에 비해서는 조금 뒤쳐지는 편이지만 극장 시설만큼은 서유럽의 어느극장 못지않게 화려하다. 그리고 에스타테 극장같은 경우는 볼륨이 적어서 그 음향은 기대 이상이다. 물론 티켓 가격을 생각하면 가격대 성능비는 결코 나쁘지 않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로 동유럽을 선호하며 그 중심에 프라하를 둔다. 나이트 라이프가 발달되지 않은 유럽여행. 저녁시간을 레스토랑이나 숙소에서 보내는 것 보다 오페라를 한 편 만날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볼타바 강에서 바라보는 프라하성의 야경 못지않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거라 생각한다.



동서양의 조화와
자연과의 화합을 지향하는

2016 통영국제음악제

SOUNDS
OF
TOMORROW

3/25~4/3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유명한 관광명소이자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문화예술 도시로 유명하다. 극작가 유치진과 시인 유치환 형제를 비롯해 시인 김춘수, 김상옥, 화가 전혁림의 고향이자 역시 통영 출신인 소설가 박경리의 작품 속 정취가 살아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무엇보다 ‘통영’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예술가는 바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다. 그가 꿈에서도 잊지 못하고 평생을 그리워한 고향 앞바다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통영으로, 그를 기리기 위한 통영국제음악제가 매년 여가서 열리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지난 2000년 통영문화재단과 국제유니사협회가 개최한 ‘통영현대음악제’를 모체로 하고 있다. 2002년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설립과 함께 ‘통영국제음악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4년부터는 단일행사에서 벗어나 매년 시즌별로 통영국제음악제와 TIMF아카데미,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열리고 있다.

전 세계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11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부문을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첼로 부문에 이어 올해는 피아노, 2017년에는 바이올린 부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독일의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모데른과 함께 시작된 TIMF아카데미는 한국과 아시아의 재능 있는 음악 인재들을 선발, 우수한 국내외 강사진의 지도하에 다양한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봄에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동서양의 조화와 자연과의 화합을 지향하는 윤이상의 정신을 받들어 세계 곳곳의 음악인

들이 모여 매년 다른 주제로 각자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자리로, 올해는 3월 25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현대음악 네트워크인 국제현대음악협회(ISCM)가 주최하는 ‘세계현대음악제(3월 28일~4월 1일)’와 동시에 개최,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대향연이 펼쳐진다. 2016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는 ‘SOUNDS OF TOMORROW, 음악의 미래를 말하다’. 3월 25일 개막날인 성 금요일(Good Friday, 성 주간의 금요일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에 맞추어 바그너 오페라 ‘파르지팔’ 중 가장 유명한 장면인 ‘성 금요일의 마법’을 마에스트로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준다. 4월 4일 폐막공연에서는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지휘, 세계 각국의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이루어진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연주로 ‘20세기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작곡가 버르토크의 대표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의 ‘사이렌의 침묵’(2014년 작, 아시아 초연),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



⌘ TIMF2015 TFO



⌘ Christoph Eschenbach

⌘ Bach Collegium Japan



하는 현대음악 작곡가 브루노 만토바니의 신작 첼로 협주곡(아시아 초연) 등이 연주된다.

이밖에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자 필립 글래스와 장 콕토의 걸작영화 '미녀와 야수'가 만난 오페라 '미녀와 야수(3월 25일)', 고음악의 거장 마사야키 스즈키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바흐 마태수난곡(3월 26일)', 첼리스트 마리오 브루넬로가 이끄는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앙상블(3월 27일), 아시아의 젊은 작곡가들을 발굴, 소개하는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3월 28일)', 스페인의 대표 현악 4중주단 '카잘스 콰르텟(3월 30일)',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4월 1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2016 통영국제음악제 일정

| 일시 | 장소 | 공연명 |
|--------------------|-----------------|-------------------------------|
| 3월 25일(금) 19:30 |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 개막공연 '성 금요일의 마법' |
| 3월 25일(금) 22:00 |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 필립 글래스 오페라 '미녀와 야수' |
| 3월 26일(토) 17:00 | | |
| 3월 26일(토) 19:30 |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 바흐 콜레기움 재팬 |
| 3월 27일(일) 15:00 | |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앙상블 |
| 3월 27일(일) 19:30 |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 필립 글래스: 저녁의 대화 |
| 3월 28일(월) 17:00 | |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 |
| 3월 28일(월) 21:30 | 통영국제음악당 라운지 | 나이트 스튜디오 I - 카잘스 콰르텟 |
| 3월 29일(화) 19:30 |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 브리징 컬러스 |
| 3월 30일(수) 19:30 |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 카잘스 콰르텟 |
| 3월 31일(목) 19:30 | | 두지두젬 앙상블 |
| 3월 31일(목) 22:00 | | 나이트 스튜디오 II - 마리솔 몬탈보 |
| 4월 1일(금) 19:30 |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 4월 2일(토) 19:30 | | 재즈 콘서트 '스테이시 켄트 - 체인징 라이트' |
| 4월 3일(일) 15:00 | | 폐막공연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

문의 / 통영국제음악재단(055-650-0400, www.timf.org)



이중섭, 李仲燮

행운아 중 행운아;
그 행운의 내용

최석태 미술평론가

올해는 이중섭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또한 올해는 그가 죽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숨을 받아와 살다가 간지가 40년이었던 짧은 삶이었다. 우리는 이중섭이 대단한 화가임을 알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다. 당장 그의 자취를 살펴보고 싶어서 그림을 보려해도 보기가 힘들다. 제주섬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미술관은 규모도 작지만, 소장품에 가짜까지 들어있다. 종종 열리는 관련 전시에 그 소장품이 나와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인터넷 공간에 떠있는 그림 자료들

도 상태가 그리 좋지도 않거니와 좋은 그림이어도, 그림을 둘러싼 헤아림을 아울러 보아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중에 그래도 올해는 대규모 전시가 열린다. 그것도 국립기관에서. 그러나 아직은 서울에서만 열린다. 다시 가슴이 아프다. 적어도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이라도 순회전이 열려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국립기관에서 열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인기 있는 화가여서 10주기 단위로 전시가 열리고는 했다. 그러나 한 번도 국공

립 미술기관에서 열리지 않는 않았다. 지난해에 박수근과 이쾌대의 전시가 국공립 기구에서 열린 것이 처음이었다. 이른바 친일 혐의가 짙은 이들의 전시도 열렸던 적이 있음을 비추어보면 우리의 문화 환경이 순탄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중섭을 찾아보는 기획의 첫 머리에 약간은 착잡한 느낌을 짊어서 송구하다.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깨달을 알 수 있기 바란다. 이중섭은 엄청난 행운아다. 잘사는 집에서 태어났다. 둘째 아들이어서 집안을 이끌 부담이 없



»
초등학교 졸업사진



«
삭성회 전시 광경을 보도한 일간지

었다는 등등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매력(?)을 느낄 분들이 많을 태생이다. 또 있다. 잘 생기고 키가 컸다는 점에 이르면 매력은 배가할 것이다. 농담을 늘어놓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행운은 그것 말고도 또 있다. 집안의 부가 떼뒀했다는 것도 그의 행운이었다. 더하여 평양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평원의 가문에서 태어나 외가가 있는 평양에서 초등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행운이다. 시골, 농촌의 분위기에서 대도시로 이어지는 환경을 어린이를 자극하는데 좋은 환경이다.

초등학교를 외가에서 보낸 뒤에 6년 내내 한 학교를 다닌 것도 그렇지만, 6년 내내 한 반이던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이 글을 쓰는 현재 생존해 계신 김병기다. 그는 이중섭 평생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김찬영이었다. 김찬영은 이른바 '서양화' 공부를 하고 돌아온 몇몇 인물 중 하나로만 알려졌다. 고희동과 김관호에 이어 일본에 가서 유학을 익힌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별다른 흔적은 남기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정체가 좀 더 잡히는 인물이다. 먼저 그는 앞의 인물과 달리 첫머리 문학동인지 <폐허>, <창조>의 동인으로 활동한 사람이었다. 유학생 잡지 <학지광>의 속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그 중 한 권에 있는 편집후기에는 그가 유학생들의 큰 모임에서 사회를 본 사실이 적혀있다. 동료였던 김억이 옮겨 낸 '오뇌의 무도'는 장정은 물론 서문중 하나를 썼고, 김찬영에게 바쳐진 장도 있어서, 그들이 아주 친근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몇 편의 희곡을 써서 발표했다. 현재 공간된 희곡은 항일문학에 속한다. 평양 최고 부자의 아들인 점에 더하여 그림, 나아가 문학 방면에서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런 점과 앞으로 펼쳐질 이중섭의 삶의 색깔을 견주어 보면 김찬영의 그림자가 대단히 짙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김억의 번역 시집들이 그의 제자이기도 한 김소월의 시에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그가 주도하여 개최한 삭성회 전시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도 실시했는데, 대공황 직전 3년 동안 펼쳐진 것으로 이중섭의 초등과정 고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친구 김병기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 무렵, 이중섭이 그림 그리기에 나타낸 관심의 정도는 화가 아들인 자신을 훨씬 넘는 뜨거운 것이었다고 한다. 친근한 친구의 아버지가 평양의 미술동네 어른들과 힘을 합쳐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펼친 전시를 집 바로 옆에서 보면서 보낸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자. 종종 친구집에 가서 김찬영이 그린 그림들이나 쓰던 화구, 일본이나 구미에서 나온 호화판 미술책을 보면서 보낸 시간도 많았다고 한다. 이중섭이 본 것은 이것만이었을까? 김찬영이 관여한 적지 않은 책들도 보았으리라 여겨진다.

이중섭의 행운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도 해당한다고 했지만, 첫째인 형은 띠 하나를 넘어 15~16년을 거스르는 나이였다. 이중섭이 형수의 등에 업혀서 자랐다고 하니, 그의 나이 다섯 살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중섭은 형을 아버지처럼, 형수도 어머니처럼 여겼으

리라. 형은 이중섭이 초등과정을 평양에서 보낼 때 평양 고보를 거쳐 일본으로 공부하러 갔다. 그 대열에는 이중 누나들도 끼어 있었다.

이중섭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이른바 멘토가 많았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내내 한 반이던 친구 김병기의 아버지 그리고 형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온갖 화초를 잘 다루어서 거의 초록손이라 할만한 분이었다고 한다. 잘 길러진 화초를 팔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어머니는 당찬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상이 되어서 수많은 소작인을 다루면서 목이 갈라터져 굶을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인 여성을 알본 일본인 순사의 뺨을 쳐 머리가 돌아가도록 때린 역센 지킴이이기도 하였다. 평화로운 성격의 이중섭이 자신의 어머니를 말할 때 자주 묘사한 장면이기도 했다. 하나 있었던 누나에 대한 증언은 부족하다. 그러나 그 아들이 또한 화가로 이중섭, 박수근과 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행운 하나 더. 1916년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시기는 거국적인 3·1혁명의 결과, 교사가 군복에 착검하고 일본어만 교수하던 풍경을 벗어났던 것. 이로 인해 비록 일본의 식민정책이 지배하나 학교교육에 적극 나서서 극소수이던 조선인 아동이 급증하여 이들의 이른바 맨파워가 완전 식민지 첫 연대인 1910년대와 무척 달랐다는 점이다. 20살짜리도 그제야 입학했다니, 그 약자한 소용돌이 분위기가 이중섭 세대의 힘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

미술평론가 최석태는 부산대학교 미술교육과를 거쳐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서울미술관 큐레이터와 계간미술 기자 등을 거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며 첫 근대미술가 이도영, 이중섭 등 미술가에 대한 전시와 저술 다수를 발표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4월 8일 복사꽃 아름다운 청도 봄여행

아름다운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로 떠나는 봄나들이.

우리나라 유일의 복숭아 전문연구기관인 청도복숭아시험장을 비롯해 청도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유쾌한 봄을 즐겨본다.

08: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09:30 청도복숭아시험장 견학 /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3:30 청도 도착, 청도읍성, 석빙고, 도주관 등 답사

15:30 딸기따기 체험

17:00 부산으로 출발

:: 5월 13일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 현대사와 그 속에서 꾀꾀하게 살아온 대구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기행을 떠난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10:00 대구도착, 골목투어

(동산 선교사주택-3·1 만세운동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12:30 중식

13:30 진골목, 약령시 한의학문화관 등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6:00 부산으로 출발

03 월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 회원

김학출(수영구 망미로)
동경진(남구 오륙도로)
박원석(남구 유엔로)
박정민(동래구 금강로)
박정순(수영구 구락로)

박혜란(동구 구청로)
윤금주(부산진구 엄광로)
최호성(연제구 법원북로)
홍종관(금정구 청룡예전로)
황은경(남구 수영로)

● 기존 회원

강오수(연제구 중앙대로)
고광식(남구 석포로)
김서령(금정구 식물원로)
김미자(서구 총무대로)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안성미(남구 유엔로)
정순태(부산진구 백양대로)
조민희(남구 유엔로)
조윤정(금정구 개좌로)
최정화(남구 유엔로)

구렁덩덩

신선비



에피소드 1 :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에피소드 3 : 구렁이와 셋째딸의 결혼

에피소드 2 : 구렁이의 탄생

에피소드 4 : 구렁이가 선남자로 환생함에 축하하는 춤

2016. 3. 22(화) ~ 3. 25(금) 11:00 / 2016. 3. 28(월) ~ 3. 31(목) 11:00

장소 및 입장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54)

· 훈련지도 / 서정숙 · 해설 / 이현숙 · 출연 / 정진희(신부), 박상용(신랑) 이현정(마당녀), 허태성(마당쇠), 김미란, 김경미(못된딸)

CULTURE LIFE

INVITATION TO THE ARTS
March 2016
vol.291

23 프리뷰
32 리뷰
34 프로그램 가이드
48 새로 나온 음반
49 새로 나온 책



22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삼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6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경쾌한 왈츠와 폴카로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6 신춘음악회-새봄의 클래식'이 3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이 객원지휘하고 객원악장 신상준, 소프라노 이재란, 테너 조윤환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제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생동하는 봄에 어울리는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 봄의 서정을 그린 국내외 가곡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3.10(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지휘 이병욱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석 졸업한 후 전문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병욱은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부지휘자, 유럽 정상의 현대음악 전문양상블인 'OENM' 수석 객원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잘츠부르크 시에서 주최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의 오프닝 공연을 지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귀국 후 KBS 교향악단, 코리아 심포니, 부천 필하모닉, 부산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등 국내 우수 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기도 한 이병욱은 2014년 10월 유럽 최정상의 실내악단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한국 순회공연에서 객원지휘를 맡아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transArt Orchestra Salzburg 음악감독, TIMF 앙상블 수석 지휘자를 역임한 이병욱은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 꽃과는 아가씨'를 들려주며 남부 러시아 및 그 근동의 민속음악을 사용해 매력적인 멜로디와 풍부한 색채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하차투리안의 발레곡 '스파르타쿠스' 중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를 들려준다.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이재란은 현재 가야오페라단 단장,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트레이너 겸 부지휘자, 정관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정관여성합창단 지휘자, 부산 BCC 문화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환은 서울 독일가곡연구회, 부산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칼빈신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프라노 이재란



객원악장으로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계명대학교 교수 신상준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UKO(United Korean Orchestra) 악장, 대구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쾌한 경기병의 행진을 묘사한 주제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테너 조윤환이 김영식 곡 '달빛이 흐르는 전경', 라라 '그라나다', 이재란이 임궁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 로시니 '피렌체

2부에서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폴카를 들려준다.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트리치-트리치' 폴카 작품 214, '천둥과 번개' 폴카 작품 324, '관광열차' 폴카 작품 281, '봄의 소리' 왈츠 작품 410과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왈츠에 맞춰 춤을 추는 두 주인공의 사랑의 노래 '입술은 침묵하고'를 소프라노 이재란과 테너 조윤환의 듀엣곡으로 들려준다.

테너 조윤환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영월행일기(寧越行日記)'

연출가 허영길(左), 극작가 이강백(右)



지난해 12월 신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상임 연출가 곽종필과 2016년을 의욕적으로 출발한 부산시립극단이 2016년 첫 작품으로 '한국문단의 살아있는 전설'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를 무대를 올린다.

3.12(토)-18(금)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 607-3107, 3147

24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연극계를 써내려간 부산연극계의 거장 허영길, 전승환, 이윤택을 주인공으로 하는 '부산 연극 역사의 힘' 첫 번째 무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원로연출가 허영길의 연출로 선보인다. 일흔 여섯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 겸 연출가인 허영길은 지난 1964년 극단 전위무대 창단 멤버로 활동을 시작한 부산연극 1세대로, 연극 '칠산리'를 비롯해 '신의 아그네스', '뇌우', '사람의 아들' 등 지금까지 150여 편의 작품을 연출한 바 있다. 지난 1998년 부산시립극단 창단과 더불어 시립극단을 이끌었던 '예술감독위원회'의 초대위원이기도 한 허영길은 이듬해인 1999년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17년만에 다시 부산시립극단과 만나 화제가 된 이번 무대에서 허영길은 지난 1990년 제8회 전국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안겨줬던 연극 '칠산리'의 작가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1995년 제19회 서울연극제에서 초연된 후 1996년 제4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을 수상한 '영월행 일기'는 왕위에 오른 지 3년만에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찬탈을 당하고 영월로 유배당한 단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나아가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고서적 연구동호회 회원인 '조당전'은 고서점에서 우연히 세조3년 신숙주의 하인이 유배를 떠난 단종의 행동을 살펴 쓴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구입한다. '조당전'은 책을 되돌려 달라는 '김시향'이라는 여자와 함께 책속의 인물인 신숙주의 하인, 한명회의 여종으로 변해 '영월행 일기'에 적힌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게 된다.

단종의 표정을 살피오라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영월 여행길에 오른 두 사람은 상대방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

500년 전 단종이 살았던 '영월'이라는 공간과 '영월행 일기'를 읽는 현재의 시간이 넘나드는 극중극 구조를 택하고 있는 '영월행 일기'는 극중극과 극중 현실 공간이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어 역사가 순환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도 과거와 비슷한 시간의 반복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다섯'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강백은 주요 작품으로 '알', '파수꾼', '결혼', '호모 세 파라투스', '봄날', '칠산리', '동지선달 꽃본 듯이', '북어 대가리', '느낌, 극락같은', '마르고 닳도록' 등이 있으며, 동아연극상, 대한민국문학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대산문학상 등 다수 상을 수상했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피앙상블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1970~80년대 그 시절 추억의 노래를 통해 유쾌한 합창음악을 선사하는 해피앙상블의 이색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이 3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3.15(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42, 3100

최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 가족과 이웃의 정을 담으면서 '응답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TV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응답하라 학창시절'은 아련한 추억 속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그 시절 음악으로 버무려내면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루이 암스트롱과 세시봉의 연주로 유명한 '성자의 행진(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을 비롯해 1970~80년대 아이콘이었던 세시봉과 유재하·김광석, 이문세 메들리, 동요 '고향생각', 아르디티 '입맞춤',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중 '순례의 합창' 등 7080 가요에서부터 동요, 오페라 아리아, 예술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합창음악으로 만날 수 있다.

유쾌한 합창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해피앙상블은 이태리, 독일 등에서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앙상블 팀으로 테너 이홍길, 황성학, 신대현, 이승우, 조동훈, 우원석, 바리톤 고정현, 김대성, 장진웅, 베이스 김정대, 안세범 등 현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외래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2년 음악을 통해 관객과 즐거움을 나누고자 창단한 해피앙상블은 그동안 13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대만영사관 99주년 초청연주, 일본 나고야 초청연주, 중국 북경 초청연주, 송년 및 해맞이음악회, KBS·MBC 초청연주, 교육청 찾아가는 음악회, 전북 무주 동서화합 콘서트, 김해문화의전당 초청연주, 해운대문화회관 초청연주 등 다수 무대를 통해 대중음악에서부터 가곡, 민요, 영화음악, 팝송, 동요, 예술합창 등 관객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D.Hood/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현재명/고향생각
박지영(편곡)/세시봉 메들리
박금진(편곡)/나상에 가면
윤지현(편곡)/유재하, 김광석 메들리
이영준/카레
아르디티/입맞춤
정연택/숲속을 걸어요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중 '순례의 합창'
박지영(편곡)/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박지훈/도라지꽃
윤지현(편곡)/어젯밤 이야기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윤지현(편곡)/이문세 히트곡 메들리 등

출연진

테너1 / 이홍길, 황성학, 신대현
테너2 / 이승우, 조동훈, 우원석
바리톤 / 고정현, 김대성, 장진웅
베이스 / 김정대, 안세범
소프라노 / 설은경 피아노 / 안선애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 합창의 밤

지휘 | 전상철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창단이 3월 17일 제161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 합창의 밤'으로 2016년 첫 무대를 연다.

3.17(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26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고 테너 엄정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산시립합창단 위촉곡과 새로운 창작곡으로 창작합창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1부 무대에서는 작곡가 최석태, 전경숙, 백승태, 정애련, 제갈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첫 곡인 조규옥 작시, 최석태 작곡 '자갈치의 아침'은 자갈치시장 아지매들의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소리를 생동감있게 표현한 곡이다. 작곡가 최석태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작곡그룹 '잉태' 회장, 부산시립합창단 작, 편곡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폭력과 광기, 부정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작곡가 전경숙은 김재진 작시 '너를 사랑'을 들려준다. 전경숙은 수원시립합창 창작콩쿠르, 세일가곡창작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립합창단 전임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을숙도창작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 국립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작곡가 백승태는 늘 가까이 있어 그 고마움을 모르는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대우 작시 '어머님'을, 이태리 G.Spontini 시립음악원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필하모니 캄머잘 초청공연, 아르헨티나 이과수 국제음악제, 독일 할레국제합창제, 한국합창대제전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곡가 정애련은 그가 직접 작시한 남성합창 '위로', '꽃계'를 들려준다. 1부 마지막 무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가이자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원로작곡가 제갈삼 선생의 '합창과 피아노를 위한 Elegy'가 장식한다.

2부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종육, 김동수, 안일웅의 창작곡을 만날 수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 향사회, 부산전자음악협회 회원, 부산창작합창21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김종육은 피천득 시인이 순수한 동심으로 그려낸 시정(詩情) 넘치는 곡 '꿈'을,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한 가천대학교 교수 김동수는 그가 직접 믿음의 고백으로 적은 '시편아리랑'을, 세계 3대 현대음악제로 꼽히는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단골 인사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작곡가 안일웅은 퍼포먼스 실내악곡 '다섯 섬이, 여섯 섬이(오륙도)'를 선보인다.

이밖에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최고의 가곡으로 꼽혔던 이은상 작시, 김동진 작곡 '가고파' 전후편을 우리 가곡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국민성악가' 테너 엄정행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로 꾸민다.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월드뮤직그룹 공명 & 비보이 '음악이 춤을 추다'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세계 민속악기, 전통 무용과 힙합, 팝핀, 비보이 등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앙상블과 유쾌한 퍼포먼스 무대 '월드뮤직그룹 공명&비보이-음악이 춤을 추다'가 3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3.23(수)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이번 무대를 통해 부산관객과 처음 만나는 월드뮤직그룹 공명은 지난 1997년 강선일, 박승원, 송경근, 임용주 등 4명의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후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을 통해 우리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소리를 창출하며 국내 및 세계무대에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직접 고안해 제작한 대나무 악기 '공명'에서부터 대금, 피리, 단소, 태평소 등 우리 전통악기, 웨이커, 윈드차임, 켈레, 팀발레스, 기타 등 그들이 현재 사용하는 악기만 수십 개에 이르고 그렇게 탄생된 공명만의 독특한 음악은 해외공연을 통해 공명을 우리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월드뮤직그룹으로 자리잡게 했다.

2009년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MIDEM'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유럽 음악시장에 큰 인상을 남겼던 공명은 그해 유럽 3개국 투어, 영국 7개도시 투어와 인도 공연,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SXSW 뮤직페스티벌, Live! Singapore Art Market, 캐나다 CINARS에서 성공적인 쇼케이스 무대를 가졌다. 이밖에 2011년 한국·포르투갈·그리스 수교 50주년 기념, 2012년 한국·뉴질랜드 수교 50주년 기념, 런던올림픽 기념 한국문화축제 오색찬란, 한국·칠레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등 축하공연과 미주 지역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2007 KBS 국악대상 단체부문 수상, 2008 Certificate of Recognition -City of Los Angeles, state of California 공로상, 20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한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음악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월드뮤직그룹 공명 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트릿댄스팀

인 고릴라크루와 가야금앙상블 눈꽃소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이지현, 제14회 여수 진남 전국국악대전 무용명무부 대상, 제42회 동아무용콩쿠르 한국무용 전통부문 금상을 수상한 한국무용가 나혜아가 함께 출연, 색다른 콜라보 무대를 선사한다.

우선 첫 곡으로는 공명의 1집 음반 타이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통해야'를 시작으로 전래동요 '달아달아'를 편곡한 가야금 독주곡에 전통무용 살풀이가 등장하는 '달의 여신', 소금과 기타, 까혼, 켈레,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지는 경쾌한 곡에 힙합, 팝핀 공연이 펼쳐지는 '해바라기', 크기가 서로 다른 대나무의 진동과 울림을 이용한 여러 개의 공명을 이용해 다양한 리듬과 앙상블을 빚어내는 '공명유희' 등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창작곡들을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이정필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여명登高(黎明登高)’

지휘 이정필



지난 2월 7일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으로 2016년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제8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이정필 수석지휘자의 취임연주회로 2016년 희망찬 출발을 알린다.

3.24(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희망을 품고 높이 오른다’라는 뜻의 ‘여명登高(黎明登高)’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가야금주자 장혜숙,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운, 이은혜, 소리꾼 김용우, 소프라노 김유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선희,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은 국립국악고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며 풍부한 감수성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지닌 재능있는 음악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2004년부터 지휘자로 활동영역을 넓혀 효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이정필은 2009년 5년간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을 맡아 국악의 전승과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첫 무대는 시인 신석정의 유고시 ‘여명우조’, ‘어느날’, ‘登高’를 가사로 작곡가 백성기가 곡을 부친 소리와 관현악을 위한 ‘희망서곡(希望序曲)’ 부산초연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취임연주회의 부제이기도 한 희망을 품고 높이 오르는 ‘여명登高(黎明登高)’의 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선희가 희망의 노래를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가락의 짜임새가 치밀하여 구성미가 돋보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인 최옥삼류 가야금삼조 협주곡 부산 초연 무대로 일파가야금합주단 단장, 영남국악원 원장으로 있는 장혜숙의 가야금연주로 들려준다. 청아하면서도 맑은 음으로 신명을 불러 일으키는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창부타령’과 대표적인 남도민요 ‘진도 아리랑’은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운, 이은혜가, 옛 노래가 갖고 있는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 감성과 전통음악어법의 조화를 이루는 국악창작가요 ‘임진강, 장타령, 너영나영’은 젊은층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소리꾼 김용우의 노래로 들려준다. 김용우는 2001년 KBS국악대상 민요대상, 2001 문화관광부 선정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 상’,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지막 무대는 이정필 수석지휘자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희망찬 모습을 그린 작곡가 백규진 위촉곡 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은 자란다’를 소프라노 김유섬 창원대학교 교수와 부산시립합창단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Preview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지휘 김범수



바이올리니스트 부이 콩 주이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 3월 2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로 2016년 첫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3.29(화)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01, 3148

수석지휘자 김범수가 지휘하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부이 콩 주이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비롯해 변화무쌍한 바다의 모습을 담은 멘델스존의 '헤브리디스 서곡', 그리고 낭만적 선율과 화려한 기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표제음악 작곡가인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음의 풍경화가'라 일컬어지는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표제음악을 통해 순수한 기악음악을 회화적, 문학적, 철학적 내용으로 표현하는 음악장르인 '표제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핑갈의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더욱 유명한 멘델스존 '헤브리디스 서곡 나단조 작품 26'. '핑갈의 동굴'은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의 헤브리디스 제도에 속한 스텝퍼 섬에 있는 동굴로, 1829년 헤브리디스 제도를 찾았다 장엄하고 광활한 자연이 펼쳐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크게 감동받은 멘델스존이 넘실거리는 파도와 불어오는 바람, 외로이 떠있는 섬과 바위들, 바다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웅장한 동굴,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 떼 등 변화무쌍한 이 모든 광경을 절묘한 작곡기법으로 생생히 묘사해놓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멘델스존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64'를 바이올리니스트 부이 콩 주이의 연주로 들려준다. 베토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도 불리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은 낭만적 정서와 균형 잡힌 고전적인 형식의 조화로 바이올린 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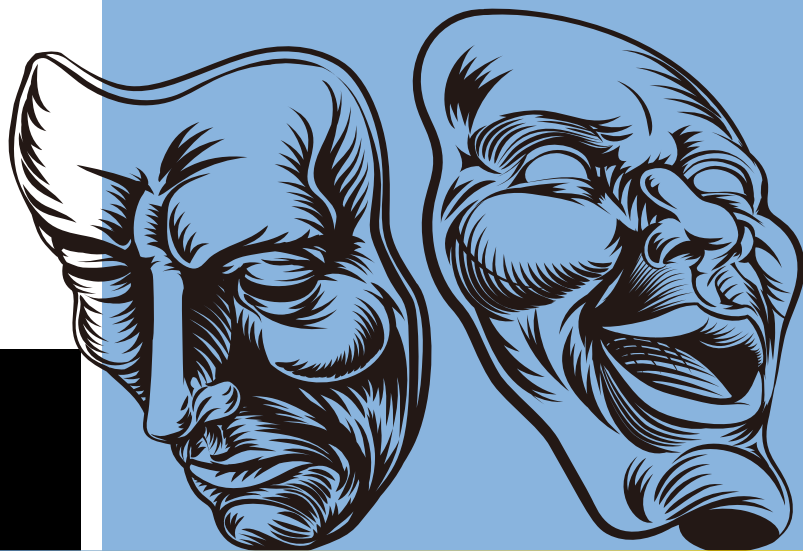
곡의 꽃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협연자인 부이 콩 주이는 베트남 호치민 음악원과 러시아 글린카 음악원,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이후 노보시비르스크 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합창단, 모스크바 필하모닉, 런던 페스티벌, 브르노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리핀 필하모닉, 호치민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트남국립교향악단 등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왔다. 부이 콩 주이는 현재 베트남 국립 음악아카데미 현악과 학장으로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호화로운 멜로디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색채감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들려준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천일야화'에 기반한 이 곡은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16
제34회

부산연극제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16년 무대가 4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아 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성찬을 마련한 이번 부산연극제는 4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창작초연작들의 경연무대인 'IN부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OFF부문',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산연극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축하공연으로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극을 조선시대로 배경을 옮겨 색다르게 연출한 극단 에저또의 '한여름 밤의 꿈'을 선보인다.

일정

<개막식>

4월 1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개막축하공연 '한여름밤의 꿈'>

4월 1일(금) 오후 8:00 /

4월 2일(토)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상 및 폐막식>

4월 17일(일)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기간 | 4월 1일(금)~17일(일)

평일 오후 8:00 / 주말 오후 6:00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시민연극제 무료]

[10인 이상 단체 50% 할인]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참가작 자격을 창작초연작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산연극계의 창작 활성화를 불러온 부산연극제 'IN부문'에서는 올해 모두 9개 극단이 참가한다. 지난해 역사극 '사초'로 최우수작품상과 연출상, 희곡상,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등 5개 부문을 휩쓸었던 극단 누리에를 비롯해 극단 도깨비, 극단 배우창고, 극단 세진, 극단 이그라, 극단 이야기, 극단 한새벌, 극단 바문사, 극단 더블스테이지가 참가, 각 극단 고유의 색깔로 뜨거운 경연을 펼친다. 특히 'IN부문'은 대한민국연극제 부산예선대회를 겸한 자리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극단은 오는 6월 청주에서 열리는 '2016 대한민국연극제'에 부산 대표로 참가해 전국 17개 시도 극단들과 다시 한번 경연을 펼치며, 이에 앞서 5월 열리는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초청작으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극단이 참가하는 소극장 연극축제로 자리매김한 'OFF부문'은 지난해부터 부산의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로 이름을 떨친 故 한형석과 부산을 대표하는 배우 전성환의 이름을 부친 '한형석 연출상', '전성환 연기상' 등 시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참가팀이 늘고 있다. 이밖에 4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는 부



2015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극단 누리에 '사초'

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산시민연극제'가 펼쳐진다. '부산시민연극제'는 출연자 뿐 아니라 조명, 음향 등 스태프들도 참가팀에서 직접 구성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OFF부문'과 '부산시민연극제'는 2월 19일까지 참가팀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통해 2월말에 참가팀이 결정된다.

IN부문 참가작

극단 도깨비 '늙은 연가'

(작/김경미, 연출/최광욱)

4월 3일(일) 오후 6:00, 4일(월)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한 아이가 길녀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극단 누리에 '구멍 속 구멍'

(작/염지영, 연출/강성우)

4월 4일(월)~5일(화)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는 작은 돌섬 계안도에 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 그 속에서 변모해가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단 세진 '모의'

(작/이중세, 연출/김세진)

4월 7일(목)~8일(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해외 주식시장의 몰락으로 추락하는 주인공 모와 모의 아내, 그리고 내연의 관계인 김 실장, 돈을 받고 납치 임무를 수행하려 모인 알 수 없는 골드 일행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물고 무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극단 이그라 '남은 여생의 시련'

(작/인무학, 연출/최성우)

4월 9일(토)~10일(일)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사할린 일제만 귀국을 받아준다는 한국의 정책에 따라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오게된 주인공 부부의 이야기.

극단 이야기 '당금애기던'

(작/서학성, 연출/박현형)

4월 10일(일) 오후 6:00, 11일(월)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집집마다 아이를 점지하여 순산하도록 도와주고 병 없이 자라게 돌보아주는 삼신 '당금애기'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극단 한새벌 '섬섬옥수'

(작/김문홍, 연출/하승호)

4월 12일(화)~13일(수) 오후 8: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9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았으나 지금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대학동기들의 오늘을 그린 작품.

극단 바문사 '표풍'

(작, 연출/최은영)

4월 13일(수)~14일(목)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귀족의 횡포와 그에 맞서는 주인공들을 그린 작품.

극단 더블스테이지 '성냥 그리고 방부제'

(작/김지숙, 연출/김동민)

4월 15일(금) 오후 8:00, 16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누이 옥선과 그 사실을 알게되어 아버지를 살해한 오빠 광재, '완벽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두 오누이의 기괴한 이야기.

극단 배우창고 '급제록'

(작, 연출/주혜자)

4월 16일(토)~17일(일)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가락을 밀친 삼아 과거 길에 오른 영남 선비 윤재수의 한양 상경기.

Review

부산시립미술관 2015.11.25~2016.3.20

앤디 워홀 라이브 展



박미경 미술평론가



32

팝아트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로 수용한 사조로서 대중적 이미지를 재현하여 대중적인 것을 수용하는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화한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950년 말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임에 반대하고 매스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 문화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미술의 경향으로써 개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술을 추구하는 사조라 할 수 있다. 팝아트는 종래의 순수미술의 영역에서 소외된 생활의 이미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이미지를 표현한다.

순수미술과 대중미술의 경계를 무효화시킨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실제 작품들이 부산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앤디 워홀 미술관'에 소장된 시대별 다양한 작품들과 삶의 흔적들을 총 망라하여 전시하고 있다.

워홀은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1949년 대학 졸

업 후 뉴욕으로 가서 '글래머', '하퍼스 바자'와 같은 패션잡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1955년~1958년까지 '뉴욕타임즈'에 아이 밀러 구두 회사의 광고를 매주 제작, 게재하여 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1957년부터 '앤디 워홀 회사'를 설립하여 상업 미술가로서 개인 작품 전시회를 열어 꾸준한 활동을 하였다.

워홀은 대량생산된 상품의 소재와 사진 전사 실크스크린 판화로 자기만의 기법을 개발해 LA에서 '32개의 캠벨 스프 캔' 전시를 열었다. 1964년에는 '팩토리'라는 작업실에서 조수들을 이용해 작품을 대량 생산하기도 했으며 실험적인 영화도 제작하였다. 그의 작업실은 1960년대 뉴욕의 문화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워홀은 작품의 주제를 정할 때 언제나 대중의 생활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상을 선택하였다.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나 비누, 돈, 대중들의 아이콘인 스타들의 사진을 미술작품이 되게

만들었다. 1970년대에는 실크 스크린에 드로잉과 페인팅, 콜라주 등 여러가지를 섞어 기법을 다양화 했다. 또한 사진을 껌에 연결하여 하나의 화면으로 만든 '껌맨 사진'과 추상적인 효과를 내는 '산화 회화', '그림자' 등 여러 실험적인 작품들도 작업하였다. 그리고 197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일의 일상을 전화통화로 기록한 '앤디 워홀 일기'와 1974년부터 그의 손을 거처간 모든 물건을 상자에 모아 담은 '타임캡슐' 작업 역시 사망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았다.

그의 작업은 현대인의 욕망과 대중문화, 상류사회와 예술가들을 융합시켰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예술화 시켰다. 예술을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회화와 판화, 예술작품과 상품의 경계를 무효화 시켰다. 또한 이전의 예술 작품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Review

고행의 리얼리티, 혹은 허세의 예술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강소원 영화평론가



THE REVENANT

신작 '레버넌트'를 홍보하러 미국 TV 토크쇼에 출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호스트가 짓궂은 인사를 건넨다. "이번에도 아카데미 상 수상에 실패한다면, 매년 그랬듯이 다음 번 시상식이 있잖아요?" 객석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지만 디카프리오의 희미하게만 웃었다. 아 난게 아니라 곧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의 초미의 관심사는 디카프리오에게 남우주연상이 갈 것인가에 쏠려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에비에이터'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수상하지 못한 것을 그의 실패가 아니라 아카데미의 실수로 단정짓는 추세다. 아마도 이번에는 그를 맨 손으로 돌려보낼 것 같지 않다. 아카데미는 배우들의 '고행'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이다.

외모를 극도로 망가뜨리거나 몸무게를 극단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고, 극한의 상황에 처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아카데미는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고요하고 섬세한 연

기보다는 눈에 띄는 뜨거운 연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아카데미의 기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물을 연기하는 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배우의 고생이 더 극심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레버넌트'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조차 '힘겹다'고 느낄 정도로 극한의 리얼리티를 전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영화다.

극한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과 예상치 못한 외양으로 그 인물을 재현한 배우, 그리고 이 모두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관객. '레버넌트'에서 이 셋을 잇는 두 개의 키워드를 뽑자면 '고생'과 '실감'이 아닐까 한다. '레버넌트'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에 압도되었다. 디카프리오의 무언(無言)극에 가까운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에마누엘 주베스키의 카메라는 유려하게 움직였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은 장엄하게 설원을 감싸고, 알레한드로 G. 이나리투의 연출은 타협없이 완벽하게 정련되었

다. 한 줌도 안되는 대사에 심지어는 이야기조차 극도로 단출했지만 이 영화는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영화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할수록 '레버넌트'는 내게 진공처럼 텅 빈 울림만 되돌려주었다. 미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사냥꾼 휴 글래스가 회색 곰에게 공격당해 너털너덜해진 사지로 4천 킬로의 설원을 가로질러 아들을 죽인 동료들 찾아 복수하는 이야기. '레버넌트'의 매력은 어디서 왔던가. 심지어 이 영화의 시각적 아름다움은 서사에 반(反)한다. 뜨거운 스크린과 거리를 두니, 주인공의 고행과 영화가 전해준 실감은 이미지의 환영이 구축한 정교한 구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얼핏, 피상적 아름다움과 심오한 예술은 얼마나 유사해 보이는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의 행방과 무관하게, '레버넌트'는 내게 긴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6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일 시 | 3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싱그러운 새봄의 기운을 경쾌한 왈츠로 느껴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6 신춘음악회-새봄의 클래식'. 차세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이 객원 지휘하고 객원악장 신상준, 소프라노 이재란, 테너 조윤환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생동하는 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 봄의 서정을 그린 국내 외 가곡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석 졸업한 후 전문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병욱은 귀국 후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부천필하모

닉, 부산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코리안심포니 등 국내 유수 교향악단을 객원지휘했으며 2014년 10월 유럽 최정상 실내악단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한국 순회공연에서 객원지휘를 맡아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병욱은 TransArt Orchestra Salzburg 음악감독, TIMF 앙상블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프로그램|**
주페/경기병' 서곡
김영식/달빛이 흐르는 전경
임공수/강 건너 봄이 오듯
라라/그라나다
로시니/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하차투리안/발레 '스파르타쿠스' 중 '스파르타쿠스와 프리기아의 아다지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박쥐' 서곡
요한 슈트라우스 2세/트리치-트리치' 폴카
프란츠 레하르/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천둥과 번개' 폴카
요한 슈트라우스 2세/관광열차' 폴카
요한 슈트라우스 2세/봄의 소리' 왈츠
• 지휘/이병욱(인제대학교 교수)
• 객원악장/신상준(계명대학교 교수)
• 협연/소프라노 이재란, 테너 조윤환

UKO오케스트라 제3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중,고등학생 20% 할인)
문 의 | 양보람 010-3863-3087



지난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니타이트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의 38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전문 연주자 120여명으로 구성된 U.K.O.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네오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있는 홍성택이 지휘하고 UKO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경상북도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최영식의 협연으로 새봄을 맞는 경쾌한 곡들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J. 슈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서곡
모차르트/신모니아 콘체르탄테 내림마장조 K.364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발레 모음곡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영월행일기(寧越行日記)'

일 시 | 3월 12일(토)~18일(금)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07, 3147



'한국문단의 살아있는 전설' 이강백의 '영월행 일기'를 부산을 대표하는 원로 연출가 허영길의 연출로 선보이는 부산시립극단 2016년 첫 정기공연. 1995년 제19회 서울연극제에서 초연된 후 1996년 제4회 대산문학상 희곡부문을 수상한 '영월행 일기'는 왕위에 오른지 3년만에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찬탈을 당하고 영월로 유배당한 단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나아가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하는 작품이다.
• 예술감독/곽종필 • 작/이강백
• 객원연출/허영길 • 작곡/김만중
• 출연/이혁우, 이현주, 정행심, 염지선, 황창기, 김은희,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사)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 부산음악대축제
2016 부산신인음악회

일 시 | 3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음악협회 사무국 634-1295
www.bmasso.or.kr



(사)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가 차세대 연주자들의 등용문으로 매년 마련해온 2016 부산신인음악회.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들 중 장래가 촉망되는 예비연주자들의 본격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온 부산신인음악회 2016년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고신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부산지역 6개 음악대학의 2015년도 우수 졸업자들을 선발, 지휘자 최영선이 지휘하는 유니타이트 코리안 심포니의 연주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피아노/남준희(부산대학교), 최영주(동아대학교)
김지연(신라대학교), 배주연(동의대학교)
• 첼로/황민혁(동아대학교)
• 성악/이정은(경성대학교), Sunia Soko Loga (고신대학교)
• 플루트/이주형(인제대학교)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봄의 열정

일 시 | 3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부산, 경남의 전문연주자들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1년 4월 소외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로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전문 민간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새봄을 맞아 소프라노 엄말영, 테너 김기영, 김지호, 김화정, 송승민, 양승엽, 엄현섭, 이은민, 이흥득, 조윤환, 허동권이 출연, 봄의 흥겨움을 노래하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스트라우스/봄의 왈츠
라라/그라나다
차이코프스키/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 '어디로 어디로 가버렸는가'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수곡
• 지휘/박성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해피양상블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일 시 | 3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3100



1970~80년대 그 시절 추억의 노래를 통해 유쾌한 합창음악을 선사하는 해피양상블의 이색 드라마 콘서트 '응답하라 학창시절'.

아련한 추억 속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그 시절 음악으로 버무려내면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함께 선사하는 해피양상블은 이태리, 독일 등에서 유학을 마친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양상블 팀으로, 현재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외래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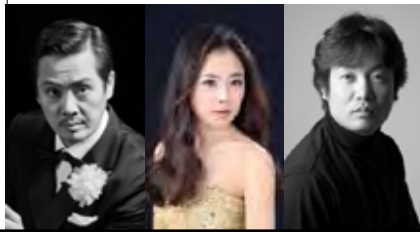
- 테너1/이홍길, 황성학, 신대현
- 테너2/이승우, 조동훈, 우원석
- 바리톤/고정현, 김대성, 장진웅
- 베이스/김정대, 안세범
- 소프라노/설은경
- 피아노/안선애

2016 평화통일 콘서트

일 시 | 3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주최측 교부)
 문 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866-6363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대중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마련하는 2016 평화통일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김법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한국뮤지컬 대표 배우 남경주, 독일을 중심으로 오페라, 오페레타, 뮤지컬 주역가수로 활동해온 소프라노 강민성, 평양국립교향악단 최연소 수석연주자로 활동하다 지난 2001년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의 4인조 성악양상블 '벨트라움'이 출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대중과 통일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낸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 합창의 밤**

일 시 |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창단이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산시립합창단 위촉곡과 새로운 창작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한국창작 합창의 밤'.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1세대 음악가인 제갈 삼 선생을 비롯해 작곡가 김동수, 김중욱, 백승태, 안일웅, 전경숙, 정애련, 최석태의 창작곡 무대에 이어 한국 최고의 가곡으로 꼽혔던 이은상 작시, 김동진 작곡 '가고파' 전후편을 우리 가곡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국민성악가' 테너 엄정행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로 꾸민다.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특별출연/테너 엄정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다이내믹 부산!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360-4020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청중과 함께 호흡해온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경제와 문화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로 지난해 창단된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앞으로 다양한 기획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프로그램]

-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
-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사단조 작품 46-8
- 시라시테/카르멘환상곡
- 요한 슈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등
- 협연/오은경(소프라노), 양승엽(테너), 이수빈(바이올린), 김태현(색소폰)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태리음악연구회 제42회 정기연주회**

봄의 향연-한국가곡과 깐짜네의 밤

일 시 | 3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정거화 010-8254-6178



이태리에서 공부한 부산의 성악가,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42번째 정기연주회.

1987년 부산 최초의 유학파 음악단체로 설립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 해오고 있는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지난

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깐짜네와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정태미, 정미순, 이지은
- 메조소프라노/박소년
- 테너/정거화, 김성배
- 바리톤/김길수, 박찬

박미정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선화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미, 월넛힐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보스턴음대에서 박사과정을 취득하며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미정 독주회.

국내외 콩쿠르와 해외에서의 다양한 무대를 통해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연주자로 두각을 나타낸 박미정은 현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독주와 피아노 듀오, 실내악 연주 등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폭넓은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미정은 현재 자매 피아니스트 박정희와 '소리나 듀오 피아노 앙상블'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0번 작품 109
- 아돌프 쇼츠-에블러/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주제에 의한 연주회용 아라베스크 슈만/유모레스크 작품 2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추는 동화 '구렁덩덩 신선비'

일 시 | 3월 22일(화)~25일(금), 28일(월)~31일(목)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07, 3154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부산시립무용단의 눈높이 프로그램 '춤추는 동화' 2016년 무대 '구렁덩덩 신선비'. 부산시립무용단의 2013년 마당춤 레퍼토리였던 동명의 작품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화려한 춤사위로 각색, 이듬해인 2014년 3월 첫 공연에서 매진시세를 낳았던 '구렁덩덩 신선비'는 외모나 조건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고 구렁이와 결혼한 현명한 셋째딸을 통해 참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 훈려지도/서정숙
- 해설/이현숙
- 출연/정진희(신부), 박상용(신랑), 이현정(마당녀), 허태성(마당쇠), 김미란, 김경미(무뎀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월드뮤직그룹 공명&비보이 '음악이 춤을 추다'

일 시 | 3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전통음악과 타 장르의 예술이 만나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음악이 춤을 추다'.

월드뮤직그룹 공명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트릿댄스팀 고릴라크루, 가야금주자 이지현, 한국무용가 나혜아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세계 민속악기, 전통무용과 힙합, 팝핀, 비보이 등이 어우러지는 이색 무대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상상력과 유쾌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월드뮤직그룹 공명은 지난 1997년 강성일, 박승원, 송경근, 임용주 등 4명의 젊은 국악인들로 결성된 후 한국 전통음악을 비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을 통해 우리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소리를 창출하며 국내 및 세계무대에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독우회 제47회 정기연주회

직장인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독우회 010-3590-0474

지난 1994년 독일 각지 국립음대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47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매년 꾸준히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독우회는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전승영, 고태욱, 신현희, 신정운, 조혜영, 이문숙, 김은정, 정경아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음악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

- 브람스/랩소디 나단조 작품 79 제2번
- 슈베르트/서주와 변주 내림나장조 제2번 D.968a
-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등
- 바이올린/오현정
- 첼로/이현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이정필 수석지휘자 취임연주회
'여명등고(黎明登高)'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지난해 12월 제8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이정필 수석지휘자의 취임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희망을 품고 높이 오른다'라는 뜻의 '여명등고(黎明登高)'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일파가

아금합주단 단장, 영남국악원 원장으로 있는 장혜숙,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운, 이은혜, 소리꾼 김용우, 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박성희, 부수석단원 정선희,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수석지휘자 이정필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부터 지휘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효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후 2009년부터 5년간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을 맡아 국악의 전승과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프로그램

- 백성기/소리와 관현악을 위한 '희망서곡[부산초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협주곡[부산초연]
- 관현악과 민요/김강산타령, 노랫가락, 창부타령, 진도아리랑
- 소리꾼 김용우와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임진강, 장타령, 너영나영
- 백규진/타악과 합창을 위한 교성곡 '희망은 자란다' [2016년 위촉곡]
- 지휘/이정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박성희, 정선희(이상 소리), 장혜숙(가야금), 김세운·이은혜(이상 민요), 김용우(소리꾼), 김유섬(소프라노), 부산시립합창단



마에스트로 사샤 마킬라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6, 3144~5

동시대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지휘자로 평가받는 지휘자 사샤 마킬라가 객원지휘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스페인 리세우 콘서트바토리 초빙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임호선 협연으로 펼쳐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핀란드 지휘자 사샤 마킬라는 가장 쿠르트 마주어가 이끄는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보조지휘자로 활동하다 명지휘자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이끄는 미국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해왔다. 현재 사샤 마킬라는 2012년부터 핀란드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켈리 시티 오케스트라(세인트 미셸 스트링 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아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돈 조반니' 서곡
-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 베토벤/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 지휘/사샤 마킬라
- 피아노/임호선

**유럽 최정상 오페라 극장의 주역가수
소프라노 전지영 리사이틀**

일 시 | 3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숨기획 010-2086-7658

...



'작은 체구에서 뿔어져 나오는 깊이 있고 품위 있는 위대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으며 유럽무대에서 '포스트 조수미'로 인정받고 있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전지영 부산연주회, 도이치오페 베를린, 드레스덴 쾰른오페라, 하노버 국립 오페라극장 등 유럽의 저명한 극장에서 최연소 한국인 솔로가수로 데뷔한 후 지난 20여년간 1,000회에 가까운 연주를 통해 명성을 쌓아온 전지영은 국내에서도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여러 오페라 작품에 출연하며 그만이 갖고 있는 섬세하고 우아한 음악과 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켜왔다.

한 극장에서 최연소 한국인 솔로가수로 데뷔한 후 지난 20여년간 1,000회에 가까운 연주를 통해 명성을 쌓아온 전지영은 국내에서도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여러 오페라 작품에 출연하며 그만이 갖고 있는 섬세하고 우아한 음악과 연기로 관객들을 매료시켜왔다.

헨델, 드보르작, 그리그, 구노, 쾰터, 들리브, 푸치니, 레하르 등 다양한 레파토리를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전병호가 특별출연, 정통 유럽 오페레타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특별출연/전병호

2016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 발레공연

일 시 | 3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3/23일까지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박헌주(010-4552-9605)
 전보라미(010-4793-8883)

...



2016년 '박헌주 Wings Dance Company'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새롭게 첫발을 내딛은 박헌주 Busan City Ballet Company의 무대. 부산시와 자매결연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국립동원연방대학 부설 발레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무대로, 클래식과 창작 발레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빠드카트르(재안무/박헌주)
 백조의 호수 중(재안무/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
 잠자는 숲속의 미녀(안무/마리우스 썬뎬바, 재안무/박헌주,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
 • 총안무 및 연출/박헌주 • 총지휘/양정욱
 • 대본/박헌주 • 사회/김은희(프리랜스)

**에디트 피아프를 잇는 프랑스 대표 상송 뮤지션
무롱 콘서트**

일 시 | 3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균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전설적인 상송가수 '에디트 피아프'를 잇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송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무롱 콘서트. 무롱은 성악가인 아버지와 작곡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12살 때부터 작곡과 노래를 시작했으며, 17

세때 가수 '미셸 뤼갱(Michel Fugain)'이 이끄는 '빅 바자르(Big Bazar)' 그룹에서 활동했다. 이후 작곡자 겸 프로듀서인 '테리 트럭(Terry Truck)'을 만나 독일로 진출한 무롱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베트남, 마카오, 홍콩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롱만의 음악으로 상송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 피아노/테리 트럭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일 시 | 3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3101, 3148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2016년 첫 정기연주회로 마련하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수석지휘자 김병수가 지휘하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부이 쑹 주이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비롯해 변화무쌍한 바다의 모습을 담은 멘델스존의 '해브리디스 서곡' 그리고 낭만적 선율과 화려한 기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표제음악 작곡가인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음의 풍경화가'라 일컬어지는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표제음악을 통해 순수한 기악음악을 회화적, 문학적, 철학적 내용으로 표현하는 음악장르인 '표제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3월 5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우리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시대에 맞는 다양한 창작음악을 개발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무대.

[프로그램]
 취타(집박/채수만·소금/조은경·대금/최재호, 김수일, 강은주·피리/김용우, 박영은, 진형준·해금/김민정, 이은주, 윤해승·아쟁/권해정·장구/이주현·좌고/장미진)
 옥류금 독주 '황금산의 백도라지'(옥류금/하지희)
 대금, 거문고산조 병주(대금/손한별·거문고/송다솔·장구/박재현)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배가르는 대목'(판소리/박성희·고수/최오성)
 시나위와 살풀이(살풀이/서정연·구름/정선희·대금/한영길·피리/김경수·해금/방병원·아쟁/

최영훈·가야금/윤경선·거문고/오상훈·장구/송경수·징/장미진)
 영남성주풀이(팽과리/이주현·장구/전학수·징/박재현·북/최오성·대금/강은주·피리/정주아·해금/최윤희·아쟁/최영훈·가야금/김지현·거문고/강상호·소금/조은경·태평소/박순자)
 • 해설/백규진

※ 3월에는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으로 5일에만 공연이 있습니다. 관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Music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2일 앙상블 프리즈마 '완벽한 호흡에서 빛나는 진정한 앙상블의 세계'



KBS교향악단 부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 인천시립교향악단 수석, KBS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보이스트 함일규, 코리아 심포니 부수석을 역임하고 청소년 적십자 피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이종욱,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앙상블 분더바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수니스트 이준원, 러시아 벨라루시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수석,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KBS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호른리스트 알렉산더 아키모프, 삼익콩쿠르 대상, Asti, Pedara, Marktoberdorf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강우성으로 구성된 앙상블 프리즈마의 무대.

9일 베이스 박기범 독창회



현재 러시아 음악연구회 회장, 꼬레아 오페라단 부단장,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회원, 초록우산 통영마을 드림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박기범 독창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림스키 코르사코프 국립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한 박기범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를 역임하면서 그동안 러시아 카스트라바 순회공연, 푸쉬킨 탄생 200주년 기념 초청연주,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갈라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게스트/소프라노 노미숙
• 피아노/최지선

16일 송지은, 육은화 The 1st Piano Duo Story

부산예술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동문인 피아니스트 송지은, 육은화의 듀오무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과 독일 Dresden 국립음대를 졸업한 송지은은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프랑스 국립 뉘옹 음악원과 국립 퀘이 말메종 음악원을 졸업한 육은화는 프랑스 파리 레오파드 벨



랑 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 프랑스 에피날 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 한국 마이스터 콩쿠르 피아노 부문 전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라벨/라 발스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 폴로네이즈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모차르트/소나타 K.381 등

23일 기타 주크박스 콘서트 '봄, 바다 그리고 음악'

클래식 기타리스트 신준기, 이윤정, 이동영, 류트연 주자 광승웅이 함께하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프로그램

메르츠/엘레지
바이스/류트소나타 제34번 라단조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알레로그 BWV 998 등

30일 The Blossom 'Our best days 네 번째 이야기'

부산예고 동문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심정하,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바흐/바덴부르크협주곡 제5번 라장조 BWV 1050
니노 로타/바이올린과 피아노, 플루트를 위한 트리오 슈만/피아노5중주 마장조 작품 44

더 슬로이스츠 콘서트 II

챔버 오케스트라

일 시 | 3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청소년 7천원
문의 | acm 070-7434-4502



움챔버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 김민경, 창원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은진, 진주시립교향악단 악장 김준영, 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 콘트라베이스 수석 김진욱, 움챔버오케스트라 악장 서은아,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앙상블 아토 멤버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오현진, 뉴프라이믹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수석 이기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민지, 부산 심포니에타 멤버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The Soloists 창단멤버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정성훈, 서울심포니에타 초빙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정준수, Camerata Busan 악장으로 있는 조무종이 출연, 우수한 개인기량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앙상블 무대를 보여준다.

2016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강규 010-4183-2293



(사)송인문화재단이 부산지역 아마추어 남성합창단 단원들과 부산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매년 3월 마련하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 축제합창단의 2016년 무대.

'행복한 남성들의 즐거운 합창!'이라는 주제로 올해로 5 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사)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 경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김강규가 지휘하고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과 미국 신시네티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피아니스트 권준이 피아노 반주, 관록의 베이스 유희광이 특별출연해 감동 가득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강규 • 피아노/권준
• 특별출연/베이스 유희광

INJE CELLI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INJE CELLI 010-3551-6332



인제대학교 양옥진 교수를 중심으로 첼로 전공자들로 구성된 첼로앙상블 INJE CELLI의 무대.

지난 200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무대를 통해 서로간의 음악적인 견해와 지식을 넓혀온 INJE CELLI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다이나믹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대표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광식의 특별출연으로 그동안 쌓은 기량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그리그/페르귄트 조곡
이진우/Tango of fake goods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34
포퍼/콘서트 폴로네이즈 라단조 작품 14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등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모던타임즈'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



제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콩쿠르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세계를 무대로 뛰어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콘서트.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린 마젤, 드미트리 키타옌코, 유리 바수멧, 정명훈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뉴욕필하모닉, 로테르담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온 손열음은 이번 무대에서 '모던타임즈'라는 주제로 20세기 초반 작곡된, 클래식음악의 대표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아돌프 쉴츠 이블러/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주제에 의한 콘서트 아라베스크
라벨/쿠프랭의 무덤
스트라빈스키/페트루슈카 중 '3개의 악장' 등

카파렐리 기타 초청 해외 핑거스타일 아티스트 콘서트 VII

'All Female Guitar Night'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동아대학교 다우홀

입장료 | 균일 3만 8천원

문의 | 카파렐리 070-4639-1589



독창적인 디자인과 특색있는 부품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타 브랜드 '카파렐리 기타'가 마련하는 해외 핑거스타일 아티스트 초청 7번째 무대.

'핑거스타일(Finger Style)'은 기타를 퍼커션처럼 두드리면서 일정한 리듬과 동시에 멜로디도 연주하는 특수 주법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2012년 Uppsala 국제 기타페스티벌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진 스웨덴 출신의 신예 기타리스트 Gabriella quevedo,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한 여성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Sandra Bae,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여성 기타리스트 Kanaho(奏帆) 등 세 명의 핑거스타일 아티스트가 출연, 핑거 스타일 연주의 매력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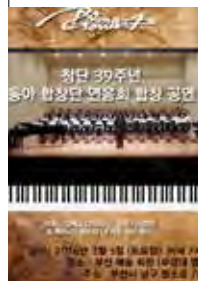
동아합창단 연습회 창단 39주년 합창공연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정태 010-4022-1161

...



동아대학교 합창단 OB모임인 연습회 회원들이 창단 39주년을 맞아 마련한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Love of My Life, We are the Champion 등 영국 록그룹 퀸(Queen)의 주옥같은 메들리부터 '맘미미아', '모차르트' 뮤지컬 넘버, OST, 가요, 가곡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김영곤 음악감독이 이끄는 빅페이스 재즈 오케스트라(Bigface Jazz Orchestra, 대표 한상우)가 출연,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김세훈 • 반주/이경진
- 트레이너/정민지(뮤지컬극단 증인)
- 편곡/김영곤, 정민지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6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오후 마련하는 토요일신명무대.

5일 프로그램

수제천, 향발무, 가곡, 승무, 가야금중주곡 '경복궁타령', 율리리물물, 부채춤

12일 프로그램

해령, 가인전목단, 기악독주, 판소리, 수영아류 중 '미암할미과장', 살풀이, 경기도당굿

19일 프로그램

자진한잎, 춘앵전, 가야금병창, 진주교방굿거리와 한량춤, 시나위, 창작타악, 춤 판

26일 프로그램

상령산, 포구락, 경기민요, 산조춤, 판소리 입체창, 삼도설장구, 삼고무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월드브리지 영재발굴 프로젝트

일 시 | 3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월드브리지 010-3074-0366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있는 연주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창단한 월드브리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영재발굴 프로젝트 무대.

월드브리지 그룹 총괄 상임 지휘자이자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는 지휘자 박성민이 지휘하고 월드브리지 홍보

대사로 있는 배우 서강준이 사회, 부산예고 2학년으로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연주자들이 협연을 맡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선보인다.

- 지휘/박성민
- 사회/서강준(배우, 월드브리지 홍보대사)
- 바이올린/천나은, 유승하
- 피아노/박상현, 진종현, 김민희, 박상희
- 성악/백민정, 황지영

김진희, 이성애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3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초대

문의 | 김진희 010-9928-3733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진희, 이성애 피아노 듀오 무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진희는 그동안 국내외 독주회 및 체

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실내악 무대, 작곡발표회, 듀오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지난 2003년 부산듀오협회콩쿠르 전체대상을 수상한 이성애는 두차례 독주회를 비롯 러시아 국립 타르스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SCM연구회 렉터연주, 한연회 등 수차례 연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영화의전당 2016 마티네콘서트

로맨틱, 쇼팽 with 피아니스트
조재혁

일 시 | 3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섬세한 연주와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무대로 마련되는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3월 무대.

완벽한 테크닉과 과장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은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해설가, 방송인, 대학교수로 폭넓은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로맨틱, 쇼팽'이라는 부제로 피아노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쇼팽의 삶과 이야기를 그의 주옥같은 명곡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 쇼팽/발라드 제1번 작품 23
- 쇼팽/발라드 제2번 작품 38
- 쇼팽/발라드 제3번 작품 47 등

양상블 ART-O 데뷔 콘서트

일 시 | 3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양상블 ART-O 010-7640-4240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소규모 실내악에서 벗어나 더욱 풍성한 울림과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결성한 현악8중주단 '양상블 ART-O'의 창단 연주회.

예술을 의미하는 'Art'와 8중주를 의미하는 'Octet'의 'O'를 결합한 'ART-O'는 클래식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클래식 공연을 선물하겠다는 각오로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 멘델스존/현악8중주 작품 20
- 바이올린/류승연, 손은혜, 정아람, 탁서연
- 비올라/김기민, 윤술선
- 첼로/김기량, 오현진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피아니스트 박주은

일 시 | 3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의 데뷔무대를 제공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3월 무대. 경주시 음악공쿠르에서 2등상을 수상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박주은의 무대로, 현재 동대학 음악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진이 찬조출연해 바흐, 모차르트, 라벨, 베토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바흐/프랑스 모음곡 제5번
-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제6번
- 라벨/라 발스 등



루체테음악극연구소 창단공연

코믹오페라 '루크레치아'

일 시 | 3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루체테음악극연구소 513-1009



음악평론가 백현주를 소장으로 다양한 장르의 극음악을 연구, 제작하는 루체테음악극연구소 창단공연 코믹오페라 '루크레치아'.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작곡가 윌리엄 볼콕의 2008년 신작 오페라인 '루크레치아'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의 '만드라골라(La Mandragola)'를 원작으로, 라틴 리듬이 다양하게 녹아있는 윌리엄 볼콕의 화려한 음악과 극적인 전개로 재미있는 현대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 원작/마키아벨리
- 대본/마크 캠펠 •작곡/윌리엄 볼콕
- 기획 및 음악감독/백현주
- 연출/김지용 •지휘/최정일
- 출연/소프라노 김유진, 구민영, 테너 임성규, 바리톤 시영민, 베이스 박상진
- 피아노/원영아, 신희정

김근혜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3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따뜻한 마음의 소리로 연주하는 연주자', '궁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연주자'라 호평받는 첼리스트 김근혜 독주회.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 졸업과 동시에 신인음악회로 데뷔무대를 가진 김근혜는 음악적 깊이와 폭넓은 음악

세계를 접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 뮌헨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현재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박사 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현재 김근혜는 전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있으며 부산예고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베토벤/모차르트 '미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성들'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WoO 46
- 스트라빈스키/이탈리안 모음곡
- 프로코피예프/첼로소나타 다장조 작품 119 등
- 피아노/이선호

이호정 귀국 피아노독주회

일 시 | 3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이호정 010-5419-2136



만 16세의 나이로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최연소 입학, 교수들의 만장일치 만점으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호정 귀국독주회.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14세 때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이호정은 프랑스의 가장 권위있는 라로크 당테롱 페스티벌과 릴 페스티벌, 님페스티벌 등에 초대받았으며, 뉴욕 Young Concert Artist 세미나리스트로 초대되기도 했다.

이호정은 지난 2014년 귀국 후 독일 엘브란트 필하모닉 초청으로 순회공연과 독주회를 가졌으며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경남아트오케스트라, 서귀포관악오케스트라와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

- 드뷔시/프렐류드
- 베토벤/소나타 '월광'
- 슈베르트(리스트 편곡)/아베마리아 등

부산피아노트리오와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15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전 부산대학교 교수이자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 전 동아대학교 교수이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역임한 첼리스트 배종구 등 부산 1세대 연주자들로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부산피아노트리오의 음악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동의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 이일세, 피아니스트 권준으로 새롭게 구성된 부산피아노트리오의 뜻깊은 무대. 이번 무대는 아흔의 나이에도 아직도 왕성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갈삼, 배종구 선생과 더불어 바이올리니스트 조무중, 송병석, 피아니스트 박지은, 테너 장진규가 함께한다.



(사)부산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라 무지카' 정상급 3테너&소프라노와 함께하는 봄의 선물

일 시 | 3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8515-7020

...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함께하는 (사)부산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 제26회 정기연주회 '봄의 선물'.

국내외 무대에서 독창회 및 오페라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지호, 양승엽, 허동권과 이태리 노바라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올해 귀국,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미성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에서부터 봄을 노래하는 슈트라우스 왈츠, 대중적인 곡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 지휘/홍성택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칸다테 앙상블이 드리는 봄의 선물

일 시 |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

daum.net/musikbaum.busan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란츠 리스트 국립 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현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Francesco Vittadini 국립음악원, Accademia Internazionale di Musica Maria Malibran 합창지휘과를 졸업한 테너 김경민,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리톤 시영민,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이태리 로마 국제 아카데미, 노르마 시립아카데미, 파우스토 토레프란카 국립음악원, 테라모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베이스바리톤 양준근으로 결성된 칸다테 앙상블의 무대.



오보이스트 김화실 제3회 독주회 오보에 공감 세 번째 이야기

일 시 | 3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율예술기획(010-9025-2012)

...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보이스트 김화실의 '오보에 공감 세 번째 이야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 대학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화실은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두차례

독주회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뉴프라이밍오케스트라, 부산 YMCA 네오파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업 무대, 2009 아시아태평양현대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리에앙상블, Knuax현대음악상을 단원을 역임하기도 한 김화실은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김란, 하피스트 김영립, 퍼커셔니스트 송희철, 더블베이스 유진과 함께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한국인 테너 최초 유럽 최정상 '라 스칼라 극장' 주연 이정원 초청 이정원&변향숙 듀오 콘서트

일 시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학생 3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2008년 오페라 '맥베드'로 한국인 테너 최초로 이태리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 데뷔 무대를 가진 테너 이정원과 현재 온다도르 대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변향숙의 듀오 무대.

이정원은 이태리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1등, 벨기에 Chant de Verviers 국제성악콩쿠르 1등, 마리아 갈라스 국제성악콩쿠르 테너부문 1등, 티토 스키파 국제성악콩쿠르 1등,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남자주역상을 수상하고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있다.

• 사회/임윤주 • 피아노/이수연
• 특별출연/부산피아노트리오(바이올린 백재진, 피아노 권준, 첼로 이일세)

소프라노 남순천 독창회

일 시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남순천 010-7458-0153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남순천 독창회.

그동안 독창회 및 2인 음악회, 오페라 주역, 오라토리오, 레퀴엠 솔리스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남순천은 현재 동아대학교, 부산예술

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생의 의미와 순환에 대해 전주곡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5곡으로 구성된 랜던 로널드의 예술가곡 '삶의 윤회(A Cycle of life)'와 로저 켈터의 '불어라 불어라 그대 겨울 바람이여(Blow, blow, thou winter wind)', '오 나의 여인이여(O mistress mine)', '오라 죽음이여(Come away Death)' 등 영국 작곡가의 곡을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아 성가곡과 요한수난곡 중 소프라노 아리아 2곡을 들려준다.

남광사회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나눔콘서트 **밝은 세상 희망의 빛**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남광사회복지회 508-1199



지난 1946년 설립된 후 소외된 이웃들의 동반자로 지역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나눔콘서트.

지난 7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70주년 기념식에 이어 동부산대학 매직엔터테인먼트학과 마술공연, 개그맨 박성호, 김재욱, 이종훈, 김원호, 정범균 등 쇼그맨과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 공연, 남광이동복지원 '복울림'과 사물놀이 협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2016년 공간 봄BOMM 음악콘서트 **더솔로이스츠 현악사중주 콘서트**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공간 봄BOMM 아트홀

입장료 | 카페상품권 5천원 구매 후 입장 가능
문의 | 공간 봄BOMM 714-6909

부산을 대표하는 인문학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공간 봄BOMM이 마련하는 2016년 공간 봄BOMM 음악콘서트 3월 무대. 뉴프라이오케스트라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기중, 뉴프라이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이기묘, 비르투오조앙상블 단원인 비올리스트 김민경,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첼리스트 오현진으로 구성된 '더 솔로이스츠 현악4중주'의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맥르딘/현악사중주 제2번
맥클린/탱고와 댄스
피아졸라/탱고발레 중 발췌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14회 프롬나드 콘서트 '봄의 소리'**

일 시 | 3월 24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챔버스퀘어

입장료 | 전석 무료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990-7099~7093

부산상공회의소 역사관인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3월 무대로,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로 희망찬 새 봄을 알리는 경쾌한 곡들을 들려준다.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호평 받고 있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기획공연과 오페라 공연, 조수미 콘서트, 호세 카레라스 독창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부산사람이태석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첼리스트 양성원,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듀오콘서트**

일 시 | 3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오션어스 아트홀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의 | 오션어스 아트홀
790-1700, 010-5245-4366



지적이고 독창적인 연주로 세계의 찬사를 받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섬세하고 절제된 터치로 주목받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엔리코파체가 함께하는 듀오 무대.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9년 제4회 대원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상을 수상한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영국 런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 초빙교수, 페스티벌 오원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Stresa 국제아마하공쿠르 1위, 1989년 프란츠 리스트 콩쿠르 1위에 입상한 바 있는 엔리코 파체는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반작업 및 국내 연주 활동을 함께 하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양성원과 엔리코 파체는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 쇼팽, 라흐마니노프 곡을 들려준다.

제50회 을숙도명품콘서트 **BRAHMS**

일 시 | 3월 31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의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 콘서트 2016년 첫 무대.

온화한 카리스마의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현재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최지웅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베토벤, 멘델스존의 협주곡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과 지휘자 한스 빌로로부터 베토벤 교향곡 제9번에 이은 '교향곡 제10번'이라 호평받은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77
브람스/교향곡 제1번 작품 68
• 지휘/오충근 • 협연/최지웅(바이올린)

Play 연극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일 시 | 1월 7일(목)-3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2/8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모티브로, 썸타는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폰수끼 넘치는 도예가 준희가 2년간 짝사랑해온 차도남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애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작전을 펼쳐나가는 내용을 담은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톡톡 튀는 캐릭터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속에서 로맨틱 코미디다운 대사와 허를 찌르는 웃음코드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연출/이주영

연극 '행복의 비밀'

일 시 | 1월 9일(토)~3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바라 1600-1716

...



한 번은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 그 앞에서 두렵지만 당당히 맞서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행복의 비밀'.

말기암 환자 달수와 보험 사기꾼 민복은 그들이 입원하고 있는 종합병원 옥상에 그동안의 아지트를 만들고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간호사

몰래 피우는 담배와 몰래 마시는 소주한 잔으로 하루의 시름을 잊으려 하고 매번 해병대 출신의 터프한 간호사와 좌충우돌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곳에 아름다운 연변처녀 류연화가 나타나고, 이들이 들려주는 행복한 세상살이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연극 '원나잇 온리'

일 시 | 2월 12일(금)~4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플레이더부산(1600-1306)

...



사랑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룻밤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연극 '원나잇 온리'.

가슴 시린 첫사랑 실패 이후 모든 연애를 거부하는 철벽남이 된 라이브바 'One Night Only Bar' 사장 강철남, 특히 바 내에서 절대 연애금지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장 강철남으로부터 민준은 바 운영과 바텐더로서의 기본자세를 배우는데, 어느날 여자 바텐더 서연이 새로 들어오면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된다.

다섯 명의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각자 다른 관념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는 '원나잇 온리'는 웃고 즐기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관객과 함께 고민해본다.

•작, 연출/이규인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2

일 시 | 2월 18일(목)~4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3/1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1980년대 대중가요로 지금 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동명의 가요를 창작 뮤지컬로 제작한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2.

아빠와 돌이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나는 가난에 벗어나고자 '돈 많고 스펙 좋은 남자'가 최고라며 사랑을 믿지 않는다. 어느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고등학생으로 오해한 경찰관 현우와 엮이게 되고, 만화방을 찾은 현우가 우연히 유나 엄마의 일거장을 발견하면서 유나는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2는 시즌 1과는 또다른 스토리에 실력과 배우들이 합류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년번별 아카펠라 퍼포먼스 뮤지컬

뮤지컬 몽키댄스 - 부산

일 시 | 3월 3일(목)~2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뮤지컬컴퍼니 끼리프로젝트 759-7112

...



이제껏 보지 못한 음악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가 어우러진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무대 '몽키댄스'.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을 극적 요소에 풀어넣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예술단체 마살아츠 퍼포먼스 팀과 뮤지컬극단 '끼리프로젝트'의 공동합작으로 선보

이는 이번 무대는 음악과 신체적 움직임의 앙상블을 통한 새로운 장르의 무대로, 전문적인 기계체조의 동작, 브라질의 카포에라 등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정형화 되지 않은 다양한 원숭이의 움직임을 시각적 효과로 극대화시킨다.

•출연/이상현, 홍선주, 김현숙, 최재연, 이사라, 오세윤, 박준수, 김경민, 서준수, 이경민, 김소연 등

2016 뮤지컬 '시카고' 부산공연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7:30, 6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 예술기획 성우1599-1980

...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 중에서도 능엄한 재즈 선율과 갱문화가 발달했던 시카고를 배경으로,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테마로 완성된 '시카고'는 1975년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인 밥 파시에 의해 처음 무대화된 후 비평가들의 최고 찬사를 받으며 스타일리쉬한 뮤지컬로 사랑받아 왔다. '벨라 켈리'役に 최정원, '록시 하트'役に 아이비, '빌리폴린'役に 이종혁과 성기윤, '마마 모튼'役に 전수경과 김경선 그리고 수년간 '시카고'와 함께한 베테랑 앙상블과 14인조 '시카고' 빅밴드가 화려하면서도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코믹연극 '검정고무신' 2탄

일 시 | 3월 4일(금)~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포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바라 1600-1716

...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검정고무신' 2탄.

홀로 오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병들어 눈을 감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업종이를 오남매에게 부탁한다. 만발 진실이는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의 의무를 다한다. 꿈이 없는 둘째 야동이, 착한 셋째 갑동이, 개구쟁이 넷째 양동이, 착한 다섯째 봉실이 그리고 업종이...

지난해 창기공연에 이어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검정고무신'은 육남매의 바람 잘 날 없는 분주한 일상이 곁쪽한 부산 시투리 속에 펼쳐져 관객들을 그 때 그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연극 '나의 P.S 파트너'

일 시 | 3월 4일(금)~5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축제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집컴퍼니 1899-9498

...



잘못 걸린 전화로 연결된 두 남녀의 19금 폰스캔들이라는 색다른 주제로 현실적인 연애세태를 그려냈던 동명의 로맨틱 코미디영화를 무대에 옮긴 연극 '나의 P.S 파트너'.

헤어지자 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버린 전 여자친구를 보며 힘들어 하던 현승에게 어느날 밤, 아릇한 전화 한통이 걸려온다. 5년 동안의 긴 연애로 시들해진 연인관계 극복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 윤정은 번호가 틀린 줄도 모르고 수화기 너머로 자신의 모든 개인기를 선보이는데...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점 친해지는 두 사람, 친구 이상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 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극 '행오버'

일 시 | 3월 10일(목)~5월 15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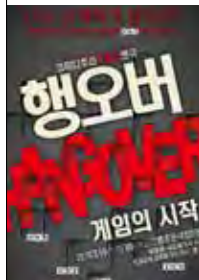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로맨틱 코미디가 주를 이루는 대학로 연극에서 추리와 코미디를 결합한 연극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극 '행오버'. 아내 '수현'을 사랑하는 남편 '철희'는 결혼 1주년과 아내 수현의 생일을 맞아 호텔에서 깜짝 납치 이벤트를 준비한다. 납치 이벤트는 감동적으로 마무리되고 철희와 수

현, 이벤트를 도와주던 업체 직원 '태민'은 이벤트 성공을 자축하며 와인을 마신다. 다음 날, 철희는 온몸에 피를 흥건하게 묻힌 채 깨어나고 아내 수현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 하지만 철희는 술을 마신 뒤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리 없으며 아연실색하고, 투숙객인 게이바 사장 '설정'과 스트립댄서 '민지'까지 가세해 서로를 의심하는데...

연극 '스캔들'

일 시 | 3월 17일(목)~6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프랑스 코미극의 대가 마르크 까올레티의 작품을 원작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번안, 각색한 로맨틱 코미극 '스캔들'.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평온한 결혼생활을 하는 우진과 고은, 어느날 우진은 고은이 친정에 가는 날이자 우진이 몰래 사귀고 있는 모델 애인 제시카의 생일을 맞아 우진의 친구인 주일

도 초대하고 출장요리사까지 불러 생일파티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내 고은이 친정 날들이를 취소하고 돌아오면서 의도치 않게 다섯 남녀가 한 집에 모이게 된다.

특별한 사연을 지닌 다섯 남녀의 얽히고 설킨 기상천외 커플탄생 스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기막힌 반전 속에 펼쳐진다.

음악극 '천변살롱'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00

...



1930년대 한국 가요시를 재조명한 음악극 '천변살롱'.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트로트나 신민요와 달리 해학과 풍자를 담았던 '나는 열일곱살이예요', '이태리 정원', '오빠는 풍각쟁이', '영터리 대학생' 등 총 15곡의 만요(漫謔)로 이루어진 '천변살롱'은 음악감독 하림의 어쿠스틱 살롱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살롱마담역의 실력파 배우 황석정의 연기와 노래가 어우러진 독특하면서도 극적인 음악극이다.

특히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이 모이던 낭만과 향수가 깃든 '천변살롱'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고스란히 무대에 담아내면서 1930년대 경성으로의 시간여행을 떠난다.

- 연출/김서룡
- 연주/하림(피아노, 아코디언), 고익석(기타), 이동준, 송기하(베이스), 조윤정(바이올린)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일 시 | 3월 23일(수)~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



동명의 소설과 영화를 원작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토리와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지난 2003년 9월 프랑스 '팔레 데 스포르드 파리'에서 초연무대를 가진 후 9개월만에 관객 90만명을 동원한, 프랑스 뮤지컬을 대표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네 연인의 사랑과 운명의 대서사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킬렛'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열연을 펼쳐 초연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다와 '닥터 지바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사랑스러운 히로인 김지우, '원조 뮤지컬 배우' 남경주, 거침없고 울림이 큰 목소리와 남성적인 매력의 김בל래, 시원한 가창력의 윤희렬 등 원작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뮤지컬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Movie 영화

예술의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콘서트

Spirit of Beethoven

일 시 | 3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초대(전화예매 필수)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



우수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이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성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만날 수 있는 예술의 전당과 함께하는 스크린 콘서트 'Spirit of Beethoven'.

지난 2014년 9월 20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임현정과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193회 정기연주회 실황을 담은 'Spirit of Beethoven'은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독창적이면서도 섬세한 피아노 연주로 재탄생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와 교향곡 제5번 '운명'을 감상할 수 있다.

Dancing 무용

코리아주니어발레컴퍼니 제2회 정기공연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코리아주니어발레컴퍼니
 010-4575-8033

...
 부산, 경상지역 6개 발레학원으로 결성된 코리아주니어발레컴퍼니의 두 번째 정기공연.
 코리아주니어발레컴퍼니는 그동안 2013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 발레학교 연수, 2014 러시아 마린스키발레학교 아나스타시아 마스터, 2015 박세은 발레리나 김기민발레리노 워크샵 등 다양한 워크샵과 국내외 유공 공쿠루에 참가하는 등 차세대 무용수들을 육성하고 있다.



Concerts 콘서트

2016 거미 단독 콘서트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슈퍼콘서트 '토요일 토요일을 즐겨라' 부산공연

일 시 | 3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사직실내체육관
 입장료 | VIP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8만 8천원
 문 의 | (주)WSM 1566-5490

휘성&윤민수 부산 콘서트

일 시 | 3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0만원
 문 의 | 인산컴퍼니 1661-4723

메모리즈 <THE 어쿠스틱> -스탠딩애그, 어쿠스틱 콜라보, 흥대광

일 시 | 3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문 의 | (주)노리공감 1800-1788

2016 K2 김성면 콘서트-부산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S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문 의 | P&C미디어 1661-2514

2016 부활 콘서트 '서른한 번째 화이트데이' 부산공연

일 시 | 3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캐드홀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R석 8만 8천원
 문 의 | 마케팅컴퍼니 아침 02-515-1217

재즈 와인에 빠지다 82nd Concert 서미현 재즈 트리오 with 김주환

일 시 | 3월 25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
 한 달에 한 번 재즈와 와인이 만나는 달콤한 무대 '재즈 와인에 빠지다' 82번째 무대.
 최고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겸비한 드러머 서미현이 이끄는 열정과 감성의 재즈 트리오 서미현 재즈 트리오와 재즈 보컬 김주환이 함께 하는 무대로,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사운드를 겸비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드러머 서미현은 여성 최초로 독일에서 드럼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드러머 최초로 세계적인 드럼 커뮤니티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2016 정동하 전국투어 콘서트 'Dream'

일 시 | 3월 26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문 의 | (주)컴퍼니에이아이엔티 1600-1563

2016 터보 콘서트_AGAIN in 부산

일 시 | 4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BEXCO 제1전시장
 입장료 | VIP석 14만 3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16 에피톤 프로젝트 전국 투어 소극장 콘서트

일 시 | 4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4월 10일 오후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8만 8천원
 문 의 | (주)인터파크INT 1544-1555

Event 행사

제3회 Youth Together Festiva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문 의 | (사)십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 010-9737-1317

...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감성을 깨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청소년 문화축제 '제3회 Youth Together Festival'.
 '학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한 경쟁의 장소인 학교를 다양한 감정이 교차되는 심리적인 공간으로 재해석한 색다른 공연문화를 선보인다.

제21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일 시 | 3월 19일(토), 26일(토) 글로벌아트홀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glovil.org
 ...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에서 마련하는 제21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 부문/피아노, 작곡, 국악, 관현악, 성악, 중창, 실내악
 • 접수/2월 1일(월)-3월 14일(월) 오후 6:00까지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

일 시 | 3월 8일(화)~6월 14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0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입장료 | 균일 20만원(15주 강의)
문의 |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663-5311~7



월드뮤직 해설가이자 클래식 식음악 애호가인 예필 최정욱이 올해 3월부터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세계음악여행'. 슬픔이 아로새겨진 아일랜드 음악 '켈틱(Celtic)음악'을 시작으로 파두(Fado), 샹송(Chason),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 집시(Gypsy) 음악과 플라멩코, 칸초네(Canzone), The Soul of Africa, 롬베티카(Rembetika), Cuban Rhythms, 멕시코 음악, 아리랑 세계의 노래, 보사노바와 탱고, 레게&안데스 음악, 인도음악, Jazz Jazz Jazz 등 15주동안 월드뮤직의 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 기획 및 해설/예필 최정욱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4강 르네상스 시대 음악

일 시 | 3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부산일보, 국제신문, 월간객석, 음악저널 등을 통해 평론활동을 펼쳐온 곽근수는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금정소음악회, MBC목요음악회 등 5천여회가 넘는 다양한 음악회에서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로 활동해왔다.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에서는 르네상스 음악의 물꼬를 튼 요하네스 오케겔 등 플랑드르 악파의 선각자들과 조반니 가브리엘리 등 베네치아 악파의 거장들, 팔레스트리나 등 로마악파의 위대한 작곡가들을 따라가며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3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3월 무대.
1부/다니엘 바렌보임, 피에르 볼레즈,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리스트 200주년, 2011 팻 메스니, 라스 다니엘슨, 에스퇴온 스펜슨, 마이클 브레커등, 2003 재즈발티카
2부/밀튼잭슨, 베니골슨, 아트파머등, 1997 재즈발티카
비지스, 원 나이트 온리, 1997 (블루레이 버전)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61회 詩 낭송회

일 시 | 3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Display 전시

'앤디워홀 라이브'전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2016년 3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문의 | 아트몬스터 1522-5662

디오라마 월드

작지만 큰 세상, 기차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Open run
KNN 월석아트홀 디오라마전용관
입장료 | 어른 1만 2천원, 어린이 1만원
문의 | 디오라마전용관 1577-7600

홍현주, La Chaise 라셰즈

일 시 | 2월 11일(목)~3월 11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미술전

3인전-김소희, 김수정, 박소정

일 시 | 2월 12일(금)~3월 17일(목)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로비
문의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749-9518

타워아트갤러리 '2016 春-美'展

일 시 | 3월 10(목)~3월 19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안광식 초대전

일 시 | 3월 15일(화)~4월 15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제나 할러웨이(Zena Holloway) 사진전

The Fantasy_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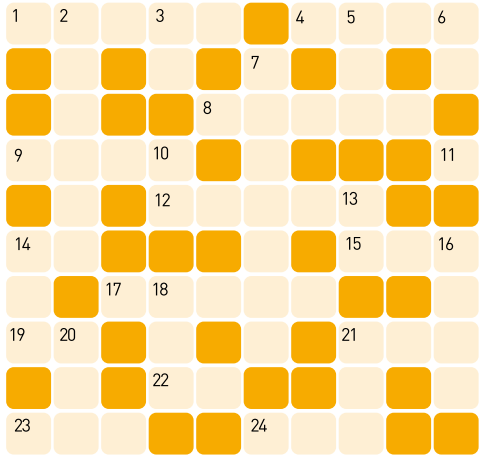
일 시 | 3월 12일(토)~6월 6일(월)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전시실
입장료 | 균일 1만원(중고등학생 20%, 어린이, 경로 40% 할인)
문의 | ☎WSM 1566-5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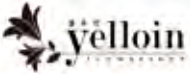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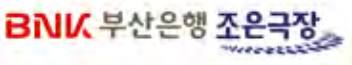
예술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사로잡은 수중사진의 대가 제나 할러웨이 사진전. 18세의 나이에 이집트 스쿠버 다이빙 과정에 참가했다 수중세계의 황홀함에 매료되었던 제나 할러웨이는 1995년 영국으로 돌아가 수중사진작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유명 매거진과 광고사진을 통해 그 이름을 떨쳐왔다. 현존하는 최고 수중 촬영의 대가인 제나 할러웨이의 이번 전시에서는 수면 아래 피어나는 마법 같은 순간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입장마감 오후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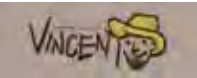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조은극장 | 1588-2757 빈센트 커피 | 051-623-0772
 큰집 | 051-245-3320



옐로인 플라워



빈센트 커피

지난호 정답

이 무 지 치 정 월 대 보 림
 기 나 식 첼
 한 여 름 밤 의 꿈 그 리 스
 잘 투 신 라
 있 쟁 이 나 들 목
 캉 거 루 족 판 다 민
 라 보 도 심
 대 태 히 말 라 야 판
 마 당 극 뉴
 도 권 투 엘 시 스테 마

2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기영(부산진구 백양관문로)
 배소영(금정구 금단로)
 이정은(동래구 복천로)
 조정기(부산진구 시민공원로)
 최성규(남구 동명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순태(서구 충무대로)
 이유진(동구 중앙대로)
 이지수(연제구 거제대로)
 정옥희(부산진구 동평로)
 최문정(강서구 녹산산업중로)

큰집 식사권
 노미희(해운대구 해운대로)
 서은미(연제구 거제천로)
 이명희(동래구 충렬사로)
 이지영(해운대구 센텀서로)
 이혜민(수영구 광안해변로)

빈센트 디치커피
 김문정(금정구 부산대학로)
 이소영(수영구 수영로)

옐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신금선(기장군 차성로)
 조용범(수영구 망미배산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 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가로열쇠

- 1995년 제19회 서울연극제 희곡상 수상, 1996년 제4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이강백의 희곡, 3월 12일부터 무대에 오르는 부산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영월에 유배 갔던 단종의 표정을 통해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갈망을 주제화했다.
- 사초(史草)가 발달되어 일어난 사화(士禍)로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첫 번째 사화, 1498년(연산군 4년) 유자광의 무리인 훈구파가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실린 사초 '조의제문'으로 사림파를 모함하여 갑입손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다.
-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의 소설을 토대로 만든 뮤지컬로, 현재 런던에서 최장기 뮤지컬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지게미와 쌀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같이 거친 식사로 끼니를 이어가며 어려운 시절을 같이 살아온 아내를 이르는 말.
- 자구의 유일한 위상으로 자구에 가장 가까운 천체
- 1988년에 개봉한 박광수 감독의 데뷔작으로 안성기, 박중훈이 출연했다. 미군 기지촌 출신인 칠수와 농촌에서 상경한 만수의 고달픈 삶을 그린 사회성 짙은 영화로, 제27회 대중상 신인감독상, 각색상, 제25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 모음곡 등에서 첫부분에 연주되어 후속부로의 도입 역할을 하는 기악곡.
- 아시아 태평양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7,0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된 나라. 수도 마닐라.
-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설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데뷔작으로, 고아 소녀 앤 셸리가 한적한 시골 마을 에이버리의 한 독신가정으로 입양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성장소설.
- 충청북도 북동부 중앙에 위치한 시(市). 매년 8월, 음악이 중심이 되는 영화들을 모아 상영하는 국제영화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 건축가.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를 비롯해 구엘공원, 카사밀라, 카사바트 오 등이 유명하다.
- 1980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데뷔작이었던 이 작품으로 당시 15세였던 주인공 소피 마르소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 17세기 프랑스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시골 청년 달타냥의 사랑과 공정의 총사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사람과 나누는 우정, 그리고 루이 13세를 둘러싼 파리 최고의 권력가 라살리와 추기경의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을 그린 뒤마의 소설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독일의 수도.

세로열쇠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더불어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한국 최고(最古)의 가사(歌謠)로, 세종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여 지은 노래이다.
-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하여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
-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무대예술. 가극(歌劇).
- 경상남도 하동 지역의 옛 지명. 고려 때 쌍계사(雙峯寺)로 가는 길목의 냇물이 만발하는 곳에 있다 하여 이 명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지금은 가수 조영남의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이곳 정터가 유명하다.
- 세익스피어가 쓴 최초의 낭만적 비극으로, 숙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청춘 남녀의 운명적 연애 비극을 다루고 있다.
- 세계 제2차대전 중 리모 이곤 영국국의 수상.
-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따위를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한 산문 형식의 글. 에세이.
- 삼진강을 중심으로 서편지역, 즉 광주, 보성, 나주, 고창 등에 전승되는 판소리 소리제. 슬픈 계면조의 노래가 대부분이며, 정교한 시김새(꾸밈음)를 사용한다.
-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러시아의 속국으로 탄압을 받던 조국 핀란드에 대한 애국적 찬가로, 핀란드 고유의 민속 선율과 리듬을 사용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켰다.
-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지역. 고대 인도 문화와 지중해 문화의 교류가 있던 유서깊은 곳으로, BC 1세기부터 AD 6~7세기까지 독특한 불교예술이 꽃피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의 고분(古墳). 처음에는 제155호 고분이라고 불렸으나 1973년 발굴조사 결과 무덤 안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채색으로 천마(天馬)를 그린 말다래(障泥, 국보 제207호)가 발견되어 000이라고 명명되었다.
- 소비에트 연방의 우주비행사로, 1961년 4월 12일 인류로서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 베를린 필하모니 2015년 송년음악회

안네-조피 무터(바이올린),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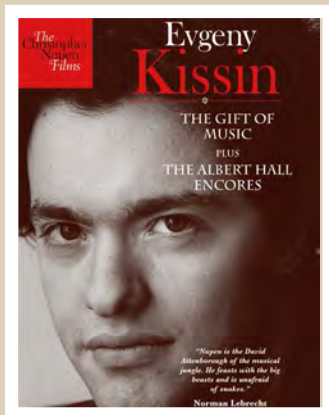
▶ 명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의 건재를 알려주는 화려하고 유쾌한 공연
베를린 필하모니는 해마다 마지막 날 신년 이브 콘서트를 연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송년음악회가 되는 셈이다. 2015년 베를린 필하모니 홀 실황을 담고 있는 이 2015년 송년음악회 영상은 앙코르로 연주된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을 제외하면 에마누엘 샤브리에의 '별' 서곡부터 카미유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질 마스네의 오페라 '르 시드'에서 발췌한 모음곡, 모리스 라벨의 '치간느', 프랑시스 풀랑크의 발레 모음곡 '암사슴'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들로만 진행된다. 베를린 필이 들려주는 전혀 위화감 없는 능숙하고 세련된 연주는 이들이 얼마나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오케스트라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특히 연주 당시 52세인 안네-조피 무터의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라벨 '치간느' 연주는 이 명 바이올리니스트의 기량이 아직 쇠퇴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6번 '전원'

이자벨 파우스트(바이올린),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파우스트적' 탐구심과 거장의 원숙함이 만나 이뤄낸 최상의 결실
2015년 4월 바덴바덴 축제극장 공연 실황으로, 공연 당시 86세였던 지휘자 하이팅크는 '교향곡 6번'에서 물 흐르듯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전원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그러나 이 영상물의 진정한 묘미는 파우스트와 협연한 '바이올린 협주곡'에 있다. 여기서 파우스트는 1악장 카덴차를 전에 없이 독특하게 연주할 뿐만 아니라 2악장에서도 난데없이 카덴차를 연주하고, 3악장에서도 많은 대목에서 가필을 섞어 연주하는 등 모든 대목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의 '파우스트적' 탐구심과 거장의 원숙함이 이뤄낸 최상의 결실이 여기에 있다. 안네 소피 무터 이후 가장 주목받는 독일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자벨 파우스트는 1997년 '버르토크 바이올린 소나타'로 세계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후 음반사 아르모니아 문디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하이든부터 리게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섭렵하며 대가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이다.



❖ 예브게니 키신 - 음악의 재능[한글자막]

▶ '천재 중의 천재'라 불리었던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성공 스토리

20세기 예리한 비평가, 수많은 청중과 전문 연주자들 모두가 '천재 중의 천재'라며 감탄했던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영상물로 103년의 프롬나드 콘서트 역사상 가장 많은 6천명의 관중을 사로잡았던 로열 앨버트 홀 콘서트 공연 앙코르 전 장면과 그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뒤프레 필름에서 송어 5중주를 흥미롭게 보여줬던 누펜이 이 영상물에서도 기동 크레머를 위시한 연주자들과 함께한 키신의 모습을 조명한다. 아주 흥미롭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1997년 8월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의 앙코르 공연이다.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프롬나드 콘서트로 리스트, 글록,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파가니니, 그리고 자신의 곡까지 천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초절기교를 보여준다.



BOOK

집



전남일 / 돌베개 / 368p / 2만원

집 안팎을 둘러싼 공간과 풍경의 변화에 대한 관찰기를 다룬 책이 나왔다. 저자는 우리 주거 문화의 변화사 연구에 일가를 이룬,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인 전남일 교수이다. 이번에 펴낸 책은 일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집의 공간과 풍경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를 보여준다. 집, 즉 주거의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난 몇 세대 동안 경험한 사회 문화적 현상의 응축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의 증식 수단으로서 집을 바라보는 시선은 집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집이 개인과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 관한 많은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집을 짓거나 꾸미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외형적인 집의 형태에 주목한 시선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간다. 즉, 현재의 공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개별 공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은 물론 이러한 변천의 과정이 사회 전반의 변화 과정과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아 왔는지를 아우른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관한 화두까지 제시한다.

신현림의 미술관에서 읽은 시



신현림 지음 / 서해문집 / 288p / 1만4천5백원

신현림 시인이 자신의 젊은 날을 사로잡은 시와 그림들을 책으로 엮었다.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판화가 오윤이 세상을 떠나던 1986년, 그의 오랜 친구였던 정희성 시인은 시 '판화가 오윤을 생각하며'를 썼다. 민중들의 끈끈한 삶을 판화의 예리한 칼맛으로 보여준 오윤의 예술혼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시이다.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한결같이 귀를 기울였던 신경림 시인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곁에 '다시 느티나무가'라는 시를 놓았다. 신경림의 시는 세한도 같은, 촘촘하고 공극한 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완전한 삶이 아닌 온전한 삶, 시련 끝에 더 단단해지는 인간의 힘을 가만 일러준다. 문태준 시인은 고갱의 마지막 유작 앞에 시 '한 호흡'을 노래했다. 시를 통해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한 호흡'이라 부르자고 답한 문태준 시인은, 시를 통해 삶의 마디마디를 돌아보며 묵묵히 생을 관조하는 힘을 일깨운다. 쇠라의 그림 <서커스> 곁에 놓인 김사인 시인의 시 '화양연화'는 시간을 먹을수록 섬광처럼 흘러 우리도 앞선 사람들처럼 눈멀고 귀 먹은 때 오니 지금을 잘 살피며 더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다독인다. 이미지와 시가 한자리에 만났을 때 일으킬 시너지를 제대로 담아낸 책.

미술 철학사(1-3권) 세트



이광래 지음 / 미메시스 / 2,656p / 8만4천원

르네상스 이후부터 미술의 종말이 언급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술사를 욕망의 계보학으로 정리한 책. 강원대 철학과 이광래 교수의 저서로 미메시스 창립 10주년에 맞춰 출간됐다. 저자의 책 머리말에서 '미술의 본질에 대한 반성과 고뇌가 깃들여 있는 작품들 그리고 철학적 문제의식을 지닌 미술가들을 찾아 미술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라고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무려 8,400매에 이르는 원고에 미술사를 가로지르는 철학의 모험을 담았다. 그리고 미메시스는 미술을 주제로 한 이 책의 편집을 위해 430여장에 이르는 도판 저작권을 해결하고 1년 6개월간의 편집 끝에 전 3권의 대작으로 탄생시켰다. 1권은 <권력과 욕망 : 조토에서 클림트까지>, 2권은 <재현과 추상 : 독일의 표현주의에서 초현실주의까지>, 3권은 <해체와 종말 :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파타피지컬리즘까지>로 구성됐다. 저자는 시대와 공간을 가로질러 존재했던 수많은 미술가들이 미술의 본질을 어떻게 새롭고 다양하게 정의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시대와 사회에 어떻게 합류하여 커다란 역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규명했다.



SPECIAL MOVIE



다큐멘터리 '감독 미카엘 하네케'

제12회 드라이베카영화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인 '감독 미카엘 하네케'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차례나 수상한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거장 미카엘 하네케의 최근 10년간의 촬영현장을 따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TV 연출가로 경력을 쌓았던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1989년 45세의 나이로 영화 '7번째 대륙'을 통해 영화계에 처음 데뷔했다. 1997년 관객에게 게임을 제안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불편한 충격을 선사한 논란의 스릴러 '퍼니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프랑스로 거처를 옮겨 한층 더 깊이 있는 주제와 메시지를 가진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2001년 '피아니스트'로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2005년 '히든'으로 칸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미카엘 하네케는 2009년 '하얀 리본'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2012년 칸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아무르'를 통해 3년 만에 다시 한번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감독 미카엘 하네케'의 감독 이브 모마외르는 10년간 하네케 감독의 촬영 현장을 따라다니며 미카엘 감독의 삶보다는 예술인으로서의 삶과 영화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여 그의 영화세계를 들여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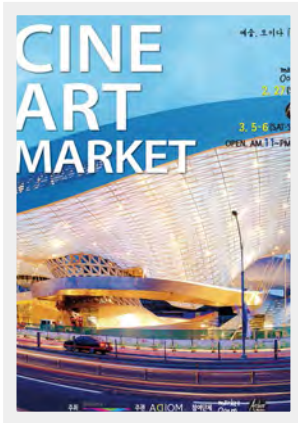
사울의 아들

2015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최고의 화제작인 신예감독 라즐로 네메스의 '사울의 아들'은 생존을 통한 감동이 아닌, 지옥 그 자체를 완벽히 재현했다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영화이다. 영화 '사울의 아들'은 이제는 추상화 되어버린 아우슈비츠의 민낯을 낱알이 공개한다. 아우슈비츠 중에서도 실제 존재했다고 알려진 시체 처리반 '존더코만도'를 소재로, 존더코만도 소속이었던 주인공 사울이 시체를 처리하던 중에 자신의 아들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유대법상 시신은 화장해서도 안 되고 해부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카디쉬'를 읽어줄 랍비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울은 아들의 시신을 제대로 묻어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지만 수용 내 반란을 꾀하는 동료들의 계획과 부딪히면서 그의 사투는 점점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홀로코스트를 다룬 어떤 서사영화보다도 많은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사울의 아들'은 4:3 비율의 아카데미 화면과 35mm 필름촬영, 사울의 뒤를 쫓으며 불안한 1인칭 시점을 제시하는 핸드헬드 카메라의 클로즈업 화면을 통해 인간 이성과 문명이 경험한 가장 큰 비극 '홀로코스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끈다.



굿바이 버클리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간 팀과 제프 버클리 부자의 알려지지 않은 실화를 담은 영화 '굿바이 버클리'는 1991년 뉴욕 브루클린 세인트 앤 교회에서 실제로 열린 '팀 버클리 추모 공연'을 배경으로 제프가 진정한 뮤지션으로 시작되는 순간을 호소력 짙은 연기와 탄탄한 연출로 담아내 전세계 영화와 음악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제프 버클리는 'Grace(1994)'라는 단 한 장의 앨범을 통해 라디오헤드, 콜드플레이, 뮤즈, 트래비스, 데미안 라이스 등 현존하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큼 미국 음악계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뮤지션이다. 제프 버클리의 아버지이자 1960년대 포크송의 아이콘 팀 버클리는 생전 9개의 앨범을 통해 우수에 가득 찬 서정적인 보컬과 목소리를 하나의 악기로 사용하는 실험적인 음악을 탄생시키며 그 시대를 풍미했다. 팀 버클리는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아들 제프 버클리 또한 2집 앨범을 준비하던 도중 의문의 사고로 31살에 생을 마감했다. '굿바이 버클리'는 팀과 제프 버클리의 극적인 삶을 교차 편집해 스토리 전개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영화 전반에 걸쳐 팀 버클리의 대표곡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극의 감동을 끌어올렸다.



영화의전당 시네아트마켓

영화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아트마켓인 '영화의전당 시네아트마켓'이 2월 27일과 3월 5일, 6일 세차례 영화의전당 비프홀 1층에서 펼쳐진다. 영화의전당이 주최하고 아디움아트가 주관하는 '영화의전당 시네아트마켓'에서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을 모티브로 한 작가의 창작 아트상품에서부터 전시, 공연, 먹거리, 포토존, 체험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시네아트마켓은 부산의 다양한 마켓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컨셉'을 정해서 참가자들이 그 컨셉에 맞추어 재해석한 작품과 상품을 전시, 판매한다. 2월 27일에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3월 5일과 6일에는 '레드 카펫'이라는 컨셉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와도 같은 마켓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 영화티켓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마케팅팀 780-6022로 문의.



2016 공간 불Bomm 인문학 콘서트

부산을 대표하는 인문학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공간 불Bomm이 올해도 다양한 인문학강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난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는 2016 공간 불Bomm 인문학 콘서트는 '생활 속 인문학 실천'을 기치로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3월 17일 부산대학교 철학과 문성원 교수의 '타자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을 시작으로 4월 20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누구인가?'(부산대학교 정외과 이철순 교수), 5월 18일 '마키아벨리와 권력의 본질'(부산대학교 사학과 곽차섭 교수), 6월 15일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이민자 정책 차별과 포용의 이중주'(단국대학교 사학과 허구생 교수), 7월 13일 '샤르트르와 앙가주망'(부산대학교 류지석 외래교수), 9월 21일 '디천(위대한 탈출)-2015년 노벨상 수상자(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배진영 교수), 10월 19일 '좋은 판결, 나쁜 판결, 이상한 판결'(부산고등법원 이혁 판사), 11월 16일 '이는 마음, 모르는 마음-용 심리학의 기초'(정신과 전문의 강철중 박사), 12월 7일 '마이스터 엑카르트와 니체'(부산가톨릭대학교 이부현 교수)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간 불Bomm 714-6909으로 문의.



제7회 부산평화영화제 공모전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에서는 제7회 부산평화영화제 공식경쟁부문 상영작을 공모한다. 부산평화영화제는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화해, 인권, 환경, 통일, 나눔과 공동체를 비롯해 갈등과 폭력, 차별에 반대하는 우수한 영화들을 통해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올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국도예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평화, 당연한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 만연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이야기와 사람들을 통해 평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계획이다. 평화와 관련된 주제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015년 1월 제작, 완성된 작품이면 형식, 길이에 구분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오는 3월 8일까지이며 마감일까지 도착한 우편 및 이메일에 한해 접수된다. 예심을 통해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동안 공식경쟁부문작으로 상영되며 본심을 거쳐 평화상, 어깨동무상, 푸른공감상, 관객상을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819-7942, bpff.tistory.com으로 문의.



NEWS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 성료



지난 1월 22일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심포니홀에서 열린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에 초청받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후쿠오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부산의 자매도시인 후쿠오카 중심지인 텐진에 위치한 ‘후쿠오카 아크로스홀’은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1995년 4월 개관 이후 국제, 문화, 정보의 교류거점시설로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이번 48회째를 맞는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해금협주곡 ‘세상풍경’, 국악관현악 ‘화랑’,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 등 다양한 창작 국악관현악곡과 흥겨운 양국의 민요메들리를 연주해 참석한 900여명의 후쿠오카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공연 당일 우천에도 불구하고 2시간부터 줄을 서며 기다렸던 후쿠오카 시민들은 우리음악의 아름다운 음율과 사물놀이의 현란한 기교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우리음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솔 오페라단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오페라부문 최우수작품상 수상



부산의 솔 오페라단이 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제2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에서 푸치니 오페라 ‘일 트리티코’로 오페라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예술의전당 예술대상’은 예술의전당이 지난 1년여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음악, 공연, 전시 등 각 분야의 작품을 실연 심사해 그 중 가장 우수작품을 선정, 그 공적을 격려하고 대한민국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지난해 제1회 예술대상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파르지팔’이 오페라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상작인 오페라 ‘일 트리티코’는 푸치니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숨겨진 보석’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단막 오페라 3편을 엮어 제작한 옴니버스식 오페라이다. 제작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제작비 문제로도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잘 올려지지 않는 희귀 작품으로, 솔오페라단이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모데나 시립극장과 공동제작으로 올려 공연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5년 창단한 솔오페라단은 창단 오페라 ‘춘희’를 시작으로 해마다 ‘아이디’, ‘리골레토’, ‘카르멘’, ‘라보엠’, ‘투란도트’, ‘춘향아, 춘향아’, ‘라트라비아타’, ‘나부코’, ‘사랑의 묘약’ 등을 발표해왔으며,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대상없는 금상,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해외 합작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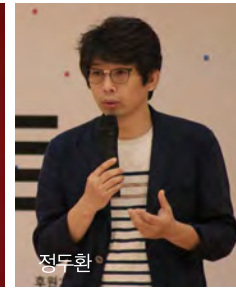
김겸



이장직



임근준



정두환



김창대

2016년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풍성

지난해 명품 이론 강좌와 수준높은 실기 강좌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가 2016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등 지역 최고의 연주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예능아카데미는 기존 클라리넷, 클래식기타, 가야금, 사물놀이 4개반 외 올해 해금강좌를 신설, 4월 4일 개강한다. 해금강좌 강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윤해승이 직접 지도, 국악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해승은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해금연주자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기존 예능강좌들은 지난해 수강생들 외 올해 새롭게 등록된 수강자들을 입문반으로 편성, 3개의 반이 늘었다. 예능아카데미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명작오페라 속으로,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2개 강좌를 진행한 예술아카데미는 올해 4명의 분야 전문가가 들려주는 '4인 4색 클래식 산책'과 서양미술사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만나는 생활 속 미술이야기 '미술, 일상을 담다'가 새롭게 신설된다.

'4인 4색 클래식 산책'은 4월부터 10월까지 류준하, 강인희, 정두환, 이장직 등 4인의 강사가 들려주는 개성 넘치는 음악 이야기로 음악에 대한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전할 계획이다. '미술, 일상을 담다'는 문화대학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미술복원 전문가 김겸을 비롯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류지석, 갤러리 이듬 강금주 대표, 미술·디자인평론가 임근준, 동서대학교 김창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임근준은 아트선재센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계간 공예와 문화 편집장, 한국미술연구소/시공아트 편집장, 월간 아트인컬처 편집장 등을 역임하고 미술·디자인 평론가, DT네트워크 발기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저술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온 임근준은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2006), <이것이 현대적 미술>(2009), <여섯 빛깔 무지개>(2015) 등을 발간했고, 2016년 상반기에 <현대미술의 끝: 좀비 모던 시대의 예술 생존법>(가제)을 발간할 예정이다.

예술아카데미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수강생을 접수한다.

- 아카데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4, 315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공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는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 연주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국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를 모집합니다.

I 공연 개요

- 공연 명: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 공연일시: 2016. 4. 23(토) 17: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 휘: 이정필(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II 협연자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전국 중·고등학교·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으로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곡목: 협주곡(자유곡) 1곡
- 모집부문: 전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비파, 생황, 양금 등)
- 모집인원: 6명 이내

III 전형일자

- 전형일자: 2016. 3. 14(월) 14:00
- 전형장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IV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2016. 3. 2(수) ~ 3. 10(목) 18:00
- 접 수 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공연운영팀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내(우편번호48534)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 함
* 봉투에 국악관현악단 제42회 청소년 협연의 밤 응시 원서라고 표기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학교장 (학과장) 추천서 1부 / 프로필 1부
 - 재학증명서 (3개월 이내) 1부 / 응시곡목: 협연곡(자유곡) 악보 7부 제출

·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공연운영팀 (051)607-3143



2016 부산문화회관 예능아카데미



클라리넷 이민호



클래식 기타 고충진



가야금 오은영



사물놀이 전학수



해금 윤해승

2016 예능아카데미 시간표

월요일 19:30 클라리넷 A반

화요일 16:30 가야금 고급반 | 18:00 가야금 입문반 | 19:30 가야금 초·중급반

수요일 19:30 클라리넷 B반

★
신설강좌

목요일 19:30 해금 | 19:00 사물놀이

금요일 14:00 클래식 기타 초·중급반 | 16:00 클래식 기타 입문반

※ 교육일정과 강습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 강 료 : 10만원~15만원(정기회원 10% 할인)

접수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커뮤니티 게시판

결제방법 : 카드결제-전화(607-3104) 또는 방문(사무국 홍보팀)

계좌입금(부산은행 101-2021-2628-04 문화회관 아카데미)

2016 예능아카데미 2기접수

접수기간 2016. 3. 3(목) ~ 3. 31(목)

개강일 4월 4일

4인 4색 클래식 산책

2016 부산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힐링타임
강인희 [피아니스트]
5월 25일~6월 15일
매주 수요일 오후 2:00



내 삶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
류준하 [‘너 음악회 가봤니?’ 저자]
4월 6일~4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세계 공연장 순례
이장직 [전 중앙일보 음악전문기자]
9월 21일~10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음악,
그대 이름은 인문학
정두환 [작곡가, 음악평론가]
7월 6일~7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개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달콤한 클래식 강좌
4인 4색 클래식 산책

운영 기간 4월 6일 ~ 10월 12일 [기간 중 총 16강]

시간·장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회차는 오후 2:00] 국제회의장

신청 기간 3월 14[월]~3월 27[일]

수강료 회차별 수강 30,000원 [4회차 종합 수강 10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모집 인원 60명

신청 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4

2016
부산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미술, 일상을 담다

Dynamic
BUSAN

미술, 일상을 담다

서양미술사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만나는 생활 속 미술이야기

운영기간 4월 7일 ~ 6월 16일 [기간 중 총 16강]

시간·장소 매주 목요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신청기간 3월 14[월]~3월 27[일]

모집인원 60명

수강료 80,000원 [정기회원 10% 할인]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4



김경 [김경 미술품보존연구소 대표]

4월 7일[목] 피아노가 있는 미술이야기

4월 14일[목] 미술품보존복원의 인문학



류지석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진임연구원]

4월 21일[목]

서양예술의 황금기 - 르네상스에서 바로크까지

4월 28일[목]



강금주 [갤러리 이듬 대표]

5월 12일[목] 생활 속에서 예술을 찾다 1

5월 19일[목] 생활 속에서 예술을 찾다 2
-갤러리 투어



임근준 [미술·디자인 평론가]

5월 26일[목] 오늘의 미술이 말하는 법 A

수집과 조사·연구 - 유사 과학적 방법으로 작품을 귀경 짓기

6월 2일[목] 오늘의 미술이 말하는 법 B

비미술적 재료의 활용 - 자전거 바퀴에서 판촉기법까지



김창대 [동서대학교 교수]

6월 9일[목] 미술관에 간 CEO 저자

6월 16일[목] 김창대가 전하는 예술과 삶의 지혜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적 많으시죠!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Since 1981
philharmony
말하모니

식사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 626-2592

MOZART
모차르트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 622-1456

송림정

식사할인 5%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4-2270

vin cent
밴드 드립
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커피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3-0772 (커피에 한함)

the first mission
juwa
coffee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070-755-2188

(주) **Gaudi** 2015

음료할인 10%

부산문화회관 공연티켓 소지자

T. 621-5788

yelloin
FLOWER SHOP

꽃 할인 1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부산문화회관입구 본점 T. 080-337-3370
대연혁신점 T. 627-1253

MEGABOX
서면점

티켓할인 2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평일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 조조, 심야, 3D제외)

안경나라
The Best Solution

상품할인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안경나라 동래점 (일부품목제외)
T. 505-8987

CROWN
HAWAII HOTEL, BUSAN

Deluxe 객실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정상가 300,000원 → 할인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제외)
T. 678-1000

새날 한의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752-9811(광안)
T. 747-9812(해운대)

굿일치과병원
덕천 | 하단 | 서면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330-6000(덕천) / T. 209-6015(하단) / T. 606-6000(서면)

웰니스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엘리움 여성병원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929-5000

신안면 권역·혁신
세흥병원
SEHUNG HOSPITAL

우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T. 819-0173

2016시립극단

연극체험

어린이 페스티벌

어린이 연극

급사등이 망아지 AM 11:00~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PM 02:00~

국제회의장 체험 페스티벌

| | |
|-----------|---------------------------|
| AM 11:30~ | 인형극 / 늑대의 하소연 |
| AM 12:00~ | 김경남 초록마술사 재미있는 미술여행 |
| AM 12:30~ | 끼리프로젝트 어린이 뮤지컬 -모해?모해? |
| PM 01:30~ | 인형극 / 늑대의 하소연 |
| PM 02:30~ | 김경남 초록마술사 재미있는 미술여행 |
| PM 03:00~ | 어린이 합창단 특별공연 -동화의 나라로 |
| PM 04:00 | 군악대공연 -해군작전사령부 |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체험 페스티벌

인형가면 만들기 체험 인형탈 포토존 키다리 풍선아트
한국 전통탈 만들기 체험 얼굴에 예쁜 문양그리기

2016.4.20~22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소극장 / 국제회의장

문의 홍보팀 051) 607-3107

공연운영팀 051) 607-3147

입장권
1,000원



寧
 越
 行
 日
 記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좌절

예술감독 **곽종필**

작가 **이강백**

연출 **허영길**

조당전 | 신숙주의 하인 **이혁우**

염문지 | 세조 **황창기**



김시향 | 한명회의 여종 **이현주, 염지선**

부천필 | 신숙주 **김은희, 오히경**

이동기 | 한명희 **서보기**

2016. 3. 12 | 토 - 18 | 금 평일 7시 30분, 토일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권 1만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607-3107(홍보팀), 607-3147(공연운영팀)

할인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년(전화예매시)

50% 중고생, 장애우(1~3급 동반1인, 4~6급 본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전화예매시)

비운의
남자
단종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52회 정기연주회

림스키 -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2016. 3.29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범수



바이올린 부이 콩 주이
Bui Cong Duy

Program

멘델스존 | 헤브리디스 서곡 나단조 「핑갈의 동굴」 작품26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64

림스키-코르사코프 |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35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 균일 2,000원 할인이벤트 | 3+1 가족이벤트(티켓 3매 구매 시 1매 무료) 문의 | 607-3101(홍보팀) 607-3148(공연운영팀)
서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 ~ 금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합창단 제161회 정기연주회

한국 창작 합창의 밤

Program

- 자갈치의 아침 조규옥 작시, 최석태 작곡
- 너를 사랑 김재진 작시, 전경숙 작곡
- 어머님 대우 작시, 백승태 작곡
- 위로 정애련 작시, 정애련 작곡
- 꽃게 심음운 작시, 정애련 작곡
- 합창과 피아노를 위한 "Elegy" 제갈삼 작시, 제갈삼 작곡
- 떠나가는 배 양중해 작시, 변훈 작곡, 이건륜 편곡
- 도라지 꽃 유경환 작시, 박지훈 작곡
- 가고파(전후편) 이은상 작시, 김동진 작곡
- 섬집아기 이영조 편곡
- 꿈 피천득 작시, 김종욱 작곡
- 시편아리랑 성경구절, 김동수 작곡
- 다섯 섬이, 여섯 섬이(오륙도) 한소자 작시, 안일웅 작곡

지휘 전상철



피아노 이승운, 이경미



제갈삼



안일웅



이영조



김동수



백승태



최석태



김종욱



전경숙



정애련

특별출연



테너 엄정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이건륜
반주 이영욱

2016. 3. 17(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지휘 사샤 마킬라
Sasha Mäkilä

Maestro SASHA MÄKILÄ

마에스트로 사샤 마킬라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7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모차르트 | 「돈 조반니」 서곡
W. A. Mozart | Overture to "Don Giovanni"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16
E. 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92
L. v. 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피아노 임효선

2016. 3.25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607-3151 (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할인정보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전화예매시)
20% ▶ 정기회원 / 예술인패스 소지자 (전화예매시) / 대학생 및 만24세이하 (전화예매시)
※ 단체(10명이상)할인 10%~30%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